

보험동향

총괄	김세중 (연구위원)
경영환경	김윤진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103_호

[2022 가을호]

목 차

I. 경영환경

1. 경제	2
2. 금융	9
3. 자금흐름	13
4. 규제·제도	15

II. 보험동향

1. 성장성	18
2. 수익성	41
3. 리스크	50
4. 시장경쟁	57

I

경영환경

- 2022년 2/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9%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OECD 전체를 비롯하여 주요국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점 100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 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함
- 2022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 경기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와 수출 모두 2021년 4/4분기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 2.4%로 하향 조정함
- 한국은행은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고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00%로 인상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 증가와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가속화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글로벌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9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8월 말 대비 86.6bp, 62.0bp 상승하였으며, 단기물 중심의 상승세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됨
- 2022년 2/4분기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에서 현금 및 예금, 국외 주식 및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국내 주식 거래금액은 1/4분기 대비 증가함
 - 2022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5.9%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전 4개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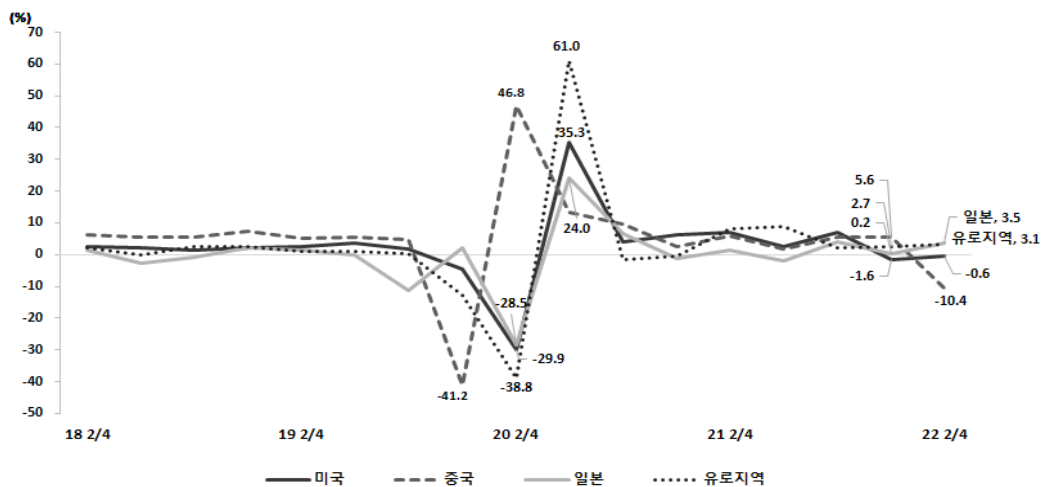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2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일본과 유로지역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¹⁾

- 2022년 2/4분기 미국 경제는 민간 재고투자, 고정투자, 정부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0.6% 축소되며, 전분기(-1.6%)에 이어 연속 2분기 역성장함²⁾
- 2022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제로코로나 방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4%를 기록함³⁾
- 일본 경제는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견조한 성장으로 1/4분기 대비 3.5% 확대됨⁴⁾
- 유로지역은 2/4분기 가계소비, 정부지출, 고정자본형성 등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⁵⁾ 전분기 대비 3.1% 성장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9); 중국 국가통계국(2022. 7); 일본 내각부(2022. 9); Eurostat(2022. 10)

1) OECD(2022. 8), "GDP Growth – Second quarter of 2022"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9),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GDP by Industry, and Corporate Profits (Revised), 2nd Quarter 2022 and Annual Update"

3) CNBC(2022. 7), "China's GDP growth misses expectations in the second qu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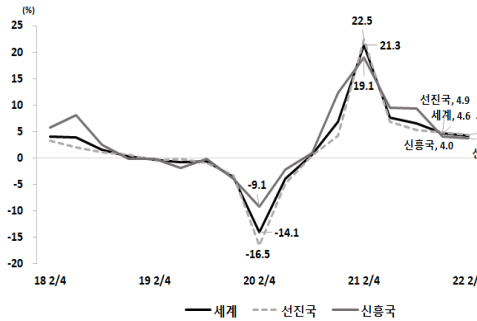
4)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2022. 9),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Apr.-Jun. 2022 (The Second preliminary Estimates)"; Reuters(2022. 9), "Japan's Q2 GDP revised up to 3.5% annualised expansion"

5) Eurostat(2022. 9),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2"

○ 2022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9% 증가하였으나, 2021년 2/4분기 이후 나타난 증가폭 감소세가 지속됨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은 각각 4.4%, 3.7%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1%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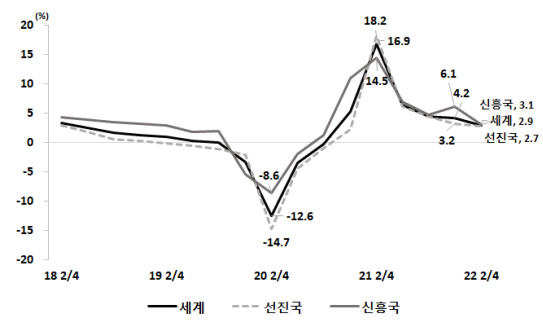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9)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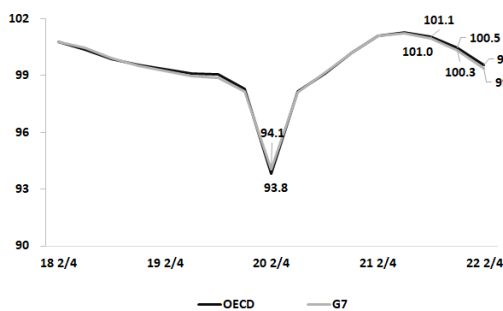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9)

○ 2022년 2/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는⁶⁾ 99.6으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하였고, 주요국 대부분의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 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함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하였고, 미국, 유로지역, 중국 또한 전분기 대비 각각 0.9p, 1.0p, 0.3p 하락한 99.4, 99.6, 98.9를 기록하며 3개국 모두 기준점 100을 하회하였으며, 일본은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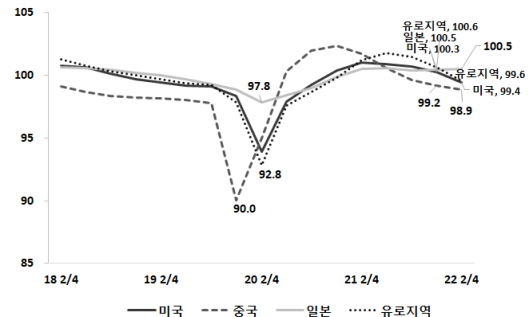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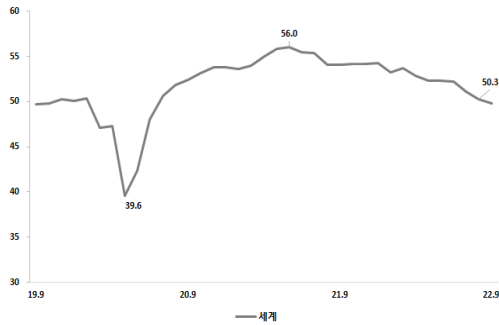
자료: OECD

6)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21년 하반기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022년 9월 49.8을 기록하며 50선을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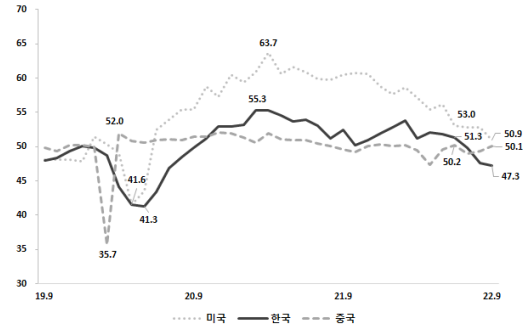
- 2022년 9월 미국, 한국,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6월 대비 각각 2.1p, 4.0p, 0.1p 낮음
50.9, 47.3, 50.1로 모두 하락추세를 보임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7〉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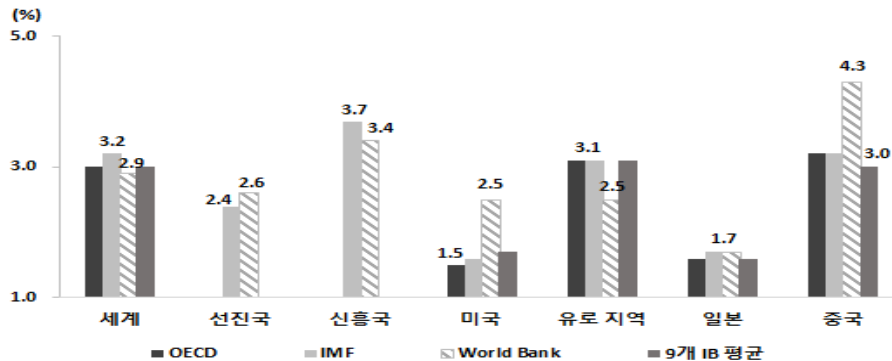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2~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IMF는 2022년 10월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고물가, 주요국 재정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하였고,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낮게 제시함⁸⁾

〈그림 8〉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는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임
자료: IMF(2022. 10); OECD(2022. 9); World Bank(2022. 6); 9개 IB 평균(202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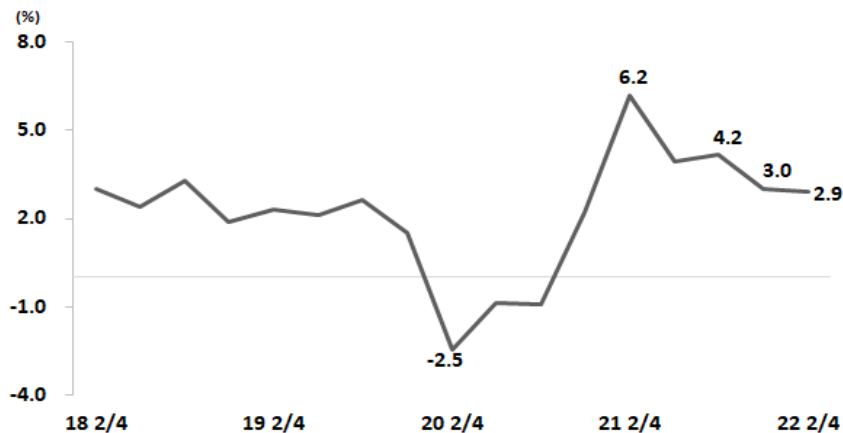
7)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8) IMF(2022. 10),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나. 국내경제

- 2022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으나, 전분기보다 성장이 소폭 둔화됨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 4/4분기 이후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음
 - 2/4분기 소매판매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지며 소매판매 증가율이 감소세(-0.2%)로 전환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4/4분기 이후 연속 2분기 하락하여 2022년 2/4분기 100.9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지식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됨⁹⁾
 -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는 4월 특수산업용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 축소되었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3.6%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기계수주는 2.4% 증가에 그쳤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22.3%로 큰 폭 증가함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 확대됨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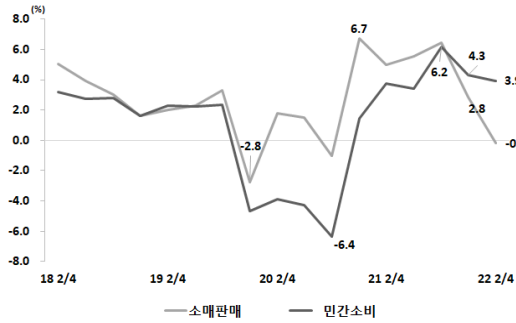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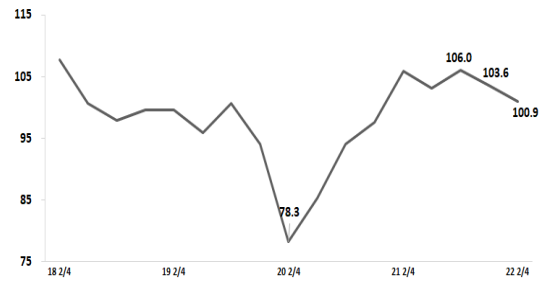
9) 통계청 보도자료(2022. 5),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6),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7),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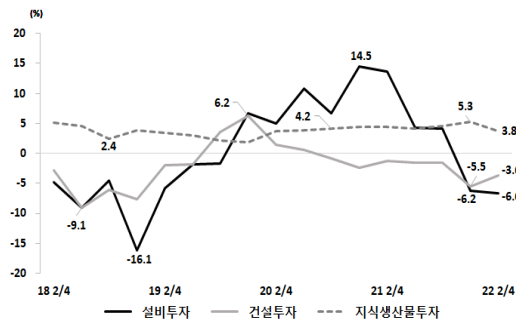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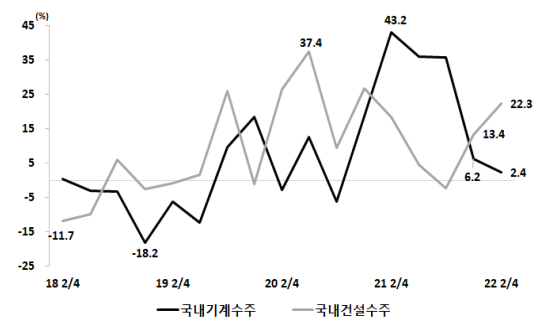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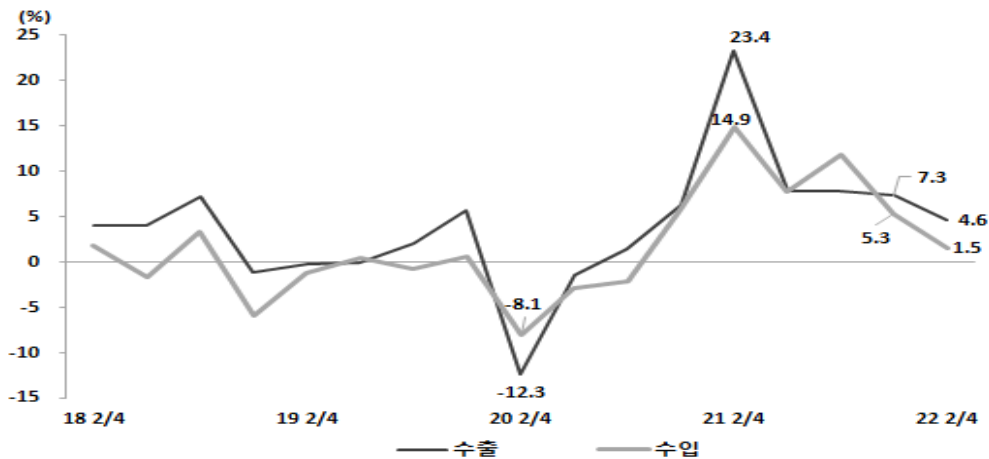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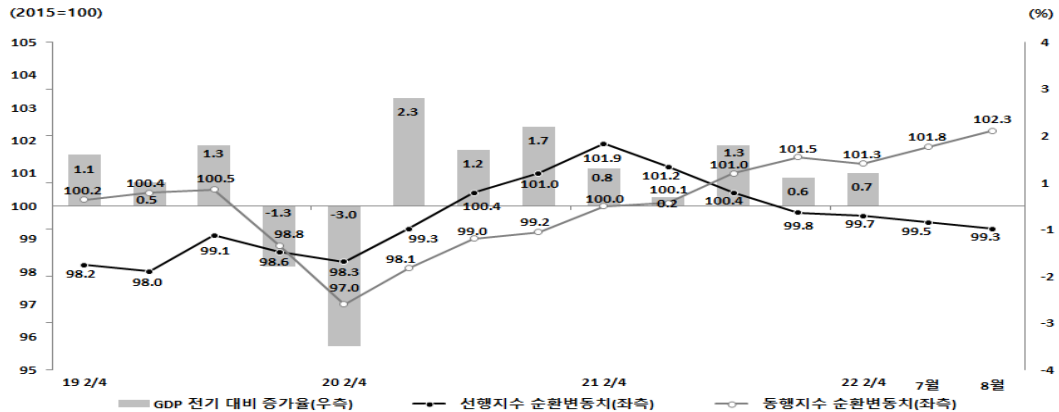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99.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한 101.3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2년 1/4분기부터 8월까지 기준점 100을 하회하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2년 8월 102.3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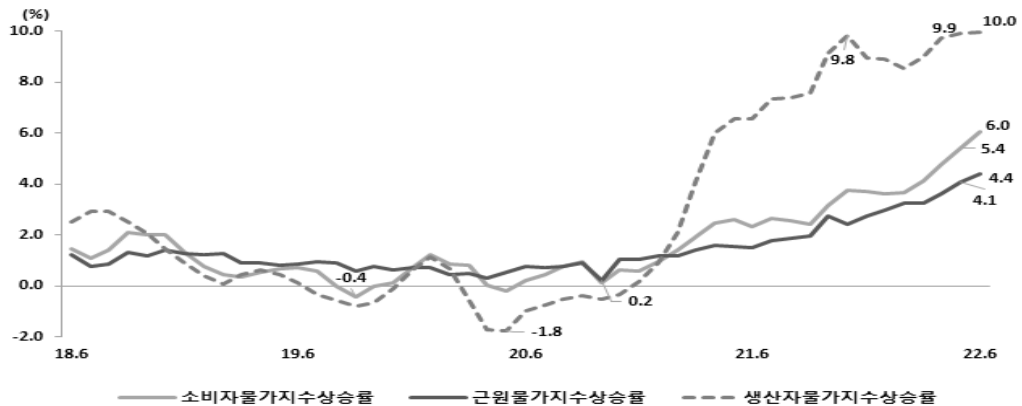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2년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재료비 상승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상승압력에 따른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199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인 6.0%를 기록함¹⁰⁾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10) 기획재정부(2022. 5; 2022. 6; 2022. 7),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국내 민간소비의 완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 약화 흐름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각각 0.1%p, 0.3%p 낮은 2.6%, 2.1%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은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1.7%(Nomura)에서 최고 2.7%(JP Morgan), 평균 2.4%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¹⁾		2023(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0.7	4.1	2.6	2.8	2.1	2.3
민간소비	-4.8	3.7	4.0	3.7	2.6	3.9
설비투자	7.2	9.0	-3.8	-4.0	0.9	2.4
건설투자	1.5	-1.6	-1.5	-1.3	2.2	2.3
지식생산물투자	3.4	4.4	4.0	4.6	3.5	3.4
상품수출	-0.2	10.5	3.2	4.3	1.6	2.5
상품수입	0.3	12.8	2.9	4.2	2.1	2.8
실업률	4.0	3.7	3.1	3.1	3.5	3.3
소비자물가	0.5	2.5	5.2	4.2	3.7	2.2
경상수지	759	883	370	516	340	602
상품수지	806	762	305	442	460	65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7	121	65	74	-120	-48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2.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2. 5),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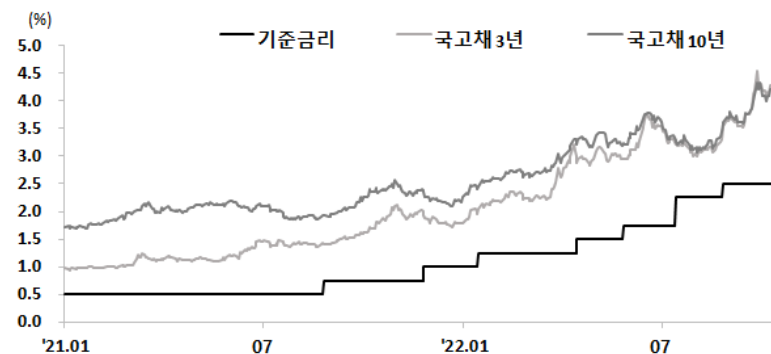
11)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2년 9월 말 기준임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으로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고 물가 수준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00%로 0.75%p 인상함¹²⁾
 -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 증가와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 수준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가속화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글로벌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의 큰 폭 상승세를 보임
 - 9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8월 말 대비 86.6bp, 62.0bp 상승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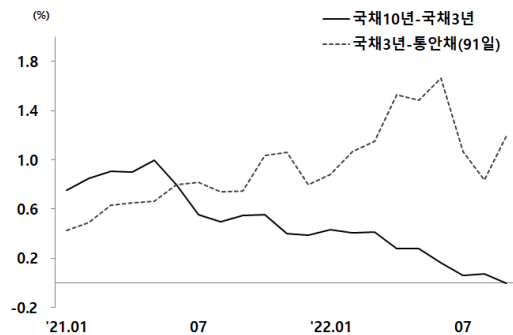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미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 상향 조정 및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강화 우려로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여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
 - 미 연준은 높은 물가수준 고착화 우려로 최종 기준금리 전망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이 예상되어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여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9월에 역전됨
 - 8월 말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3.3bp까지 축소되었고, 9월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됨(9월 22일 기준, 3년물 4.11%, 10년물 4.01%)

12)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5, 2022. 7),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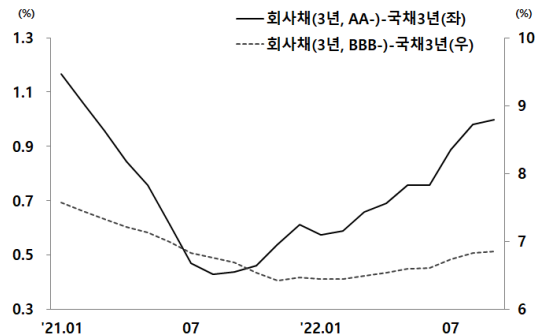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금리 변동성 확대, 한국전력공사 채권발행 확대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 등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되어¹³⁾ 7월 88.8bp에서 9월 99.7bp로 확대됨
 -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78bp)를 상회하는 수준임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Fed)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3.25%로 3회 연속 자인언트스텝(75bp)을 단행하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로 안정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임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8.5%, 8월 8.3%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미국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2년물)는 8월 말 -30.0bp에서 10월 중 -48.1bp로 금리 역전 기조가 심화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4/4분기 한국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모두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

- 2022년 4/4분기 한국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3.53%, 3.60%로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0.16%p, 0.18%p 상향 조정되었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3.85%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55%p 상향 조정됨

13) 한국은행(2022.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2. 4Q	'23. 1Q	2Q	'22. 4Q	'23. 1Q	2Q	'22. 4Q	'23. 1Q	2Q
3.85	3.84	3.72	3.60	3.56	3.45	3.53	3.50	3.44

주: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중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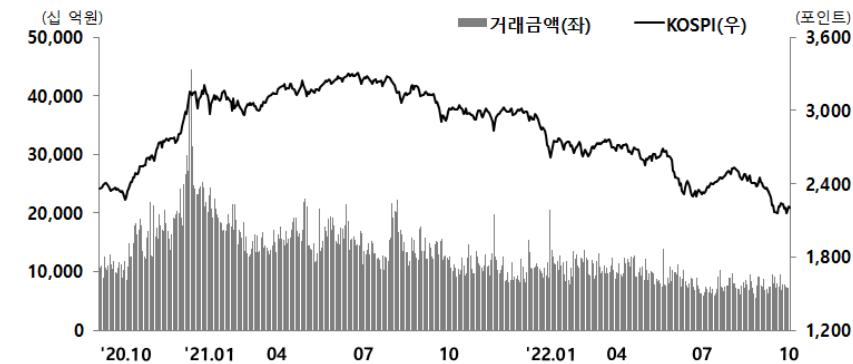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주요국 통화 긴축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코스피 지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국내 무역적자 지속, 외국인의 순매수 약화,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7월 말 2,452포인트에서 9월 말 2,155포인트까지 하락함
 - 9월 중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2.1조 원임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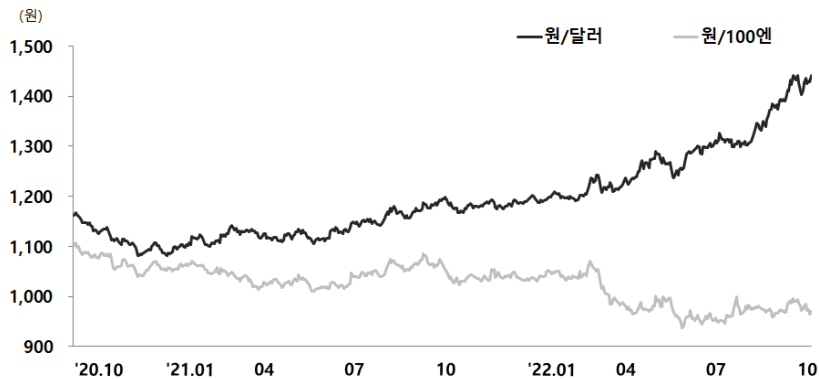
○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유로지역의 정치 및 에너지 리스크 확대, 국내 수출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임

- 8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유로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국내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7월 -50.9억 달러, 8월 -93.9억 달러) 등으로 전월 말 대비 48원 상승한 1,347원으로 마침
- 이후 미 연준의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과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하며 초강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7월 말 1,299원에서 10월 중 1,440원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통화정책 유지, 미국과의 장기 금리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함

-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24년 만에 엔화 유동성 회수를 위한 달러 매도로 100엔당 원/엔 환율이 991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엔화 약세의 주요 원인인 미·일 간 금리 차이를 축소하지 못해 다시 하락세를 보임
 - 100엔당 원/엔 환율은 7월 말 978원에서 10월 중 965원으로 하락함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4/4분기 원/달러와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강력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 확대,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2. 3Q	4Q	'22. 3Q	4Q	'22. 3Q	4Q
Standard Chartered	1,432	1,320	145	132	0.98	0.97
Wells Fargo		1,475		147		0.94
Morgan Stanley		1,480		150		0.93
JPMorgan Chase		1,380		147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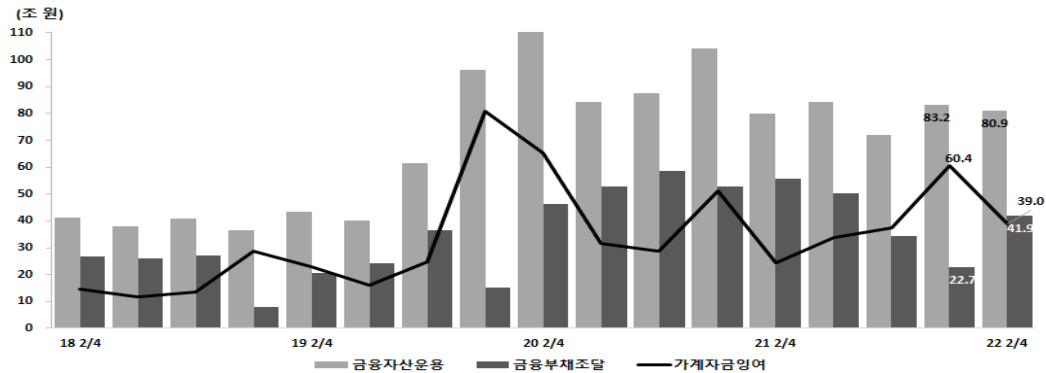
주: 2022년 3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중순 기준임

자료: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2년 2/4분기 가계부문¹⁴⁾ 자금잉여¹⁵⁾는 39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21.4조 원 감소함
 - 금융자산운용은 전기 대비 2.3조 원 감소하여 80.9조 원을 기록한 반면, 금융부채조달은 41.9조 원으로 전기 대비 19.2조 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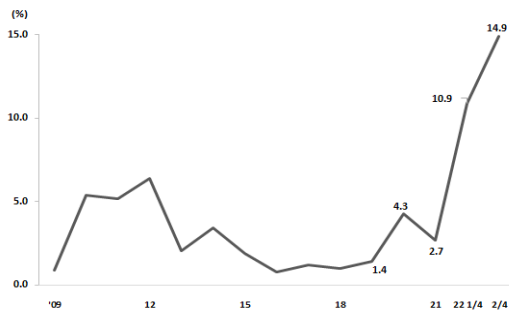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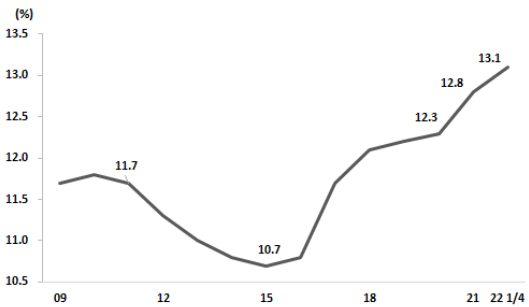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9% 확대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 1/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인 13.1%를 기록함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림 2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BIS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14)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5)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2년 2/4분기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에서 현금 및 예금, 국외 주식 거래금액,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2022년 1/4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국내 주식 거래금액은 전분기 대비 증가함
- 2022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5.9%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전 4개년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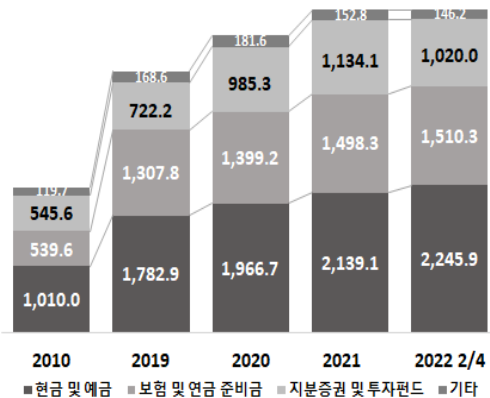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181.6
2020	188.3	71.1	(18.7)	8.4	75.3	20.6	-6.6	379.3
2021	173.7	70.2	(20.6)	-29.7	90.1	22.8	7.4	340.3
2022 1/4	63.5	11.9	(14.3)	-10.6	7.7	8.3	1.8	83.2
2022 2/4	42.7	12.8	(15.9)	0.5	19.0	5.8	-0.1	80.9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은 30.7%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1년보다 0.3%p 확대됨
- 2022년 2/4분기 가계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45.6%로 2021년보다 2.2%p 증가한 반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20.7%로 2021년보다 2.3%p 감소함

〈그림 25〉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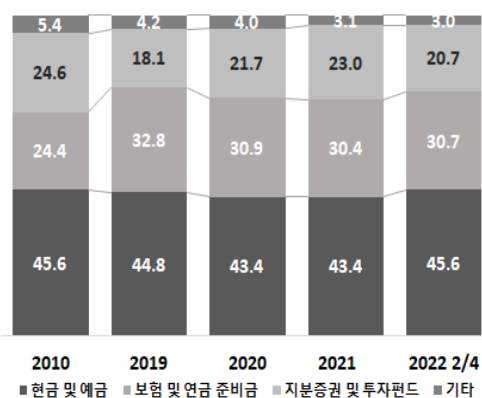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2022. 9. 29 금융감독원)**
 - 최근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함
 - 새로운 유형의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함
 - 일례로 현재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선정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기차 모터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함
-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2022. 9. 14 금융위원회)**
 - 입원적정성 심사는 수사기관(경찰청)이 의뢰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심사처리 지연 및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 사용 논란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 또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2022. 9. 5 금융감독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보험소비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거나, 중복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가입된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① 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 종업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환급되는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②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실손보험 재가입 시 현행은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 가능했으나,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 IFRS17 도입 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준비금 등 적립방안 마련(2022. 7. 20 금융위원회)

-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 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함
- 우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하여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에는 보증 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아 시가평가 시 보증 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기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감독방안은 2022년 2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2022. 7. 20 금융위원회)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1억 원 한도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기존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하며, 주택임대·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함

II

보험동향

- 2022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306조 원이며, 생명보험 자산은 감소하였으나 손해보험 자산은 증가함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942조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64조 원임
 - 생명보험 자산은 채권 평가이익 축소의 영향으로 감소하였고, 손해보험 자산은 보험료와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성장함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2.7조 원 적자를 나타냄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25.5조 원임
 -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적자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1.7조 원 흑자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7.0조 원임
 - 원수보험료 확대와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나타냄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증가함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감소, 금융자산 처분이익 및 배당수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0.7% 감소한 2.2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손해율이 개선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3.4조 원을 나타냄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와 외국사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 점유율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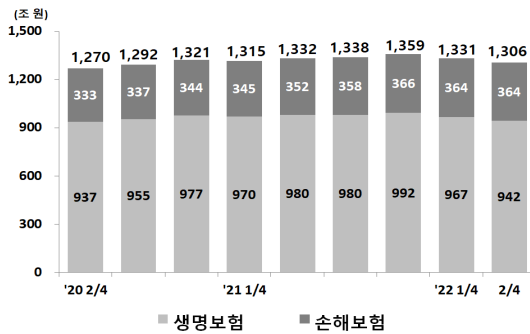
1. 성장성¹⁶⁾

가. 자산

○ 2022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306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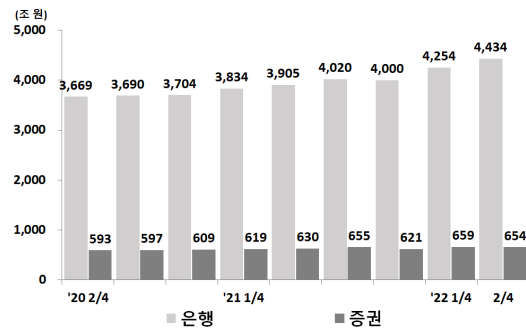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942조 원이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64조 원임
- 은행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434조 원이며, 증권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654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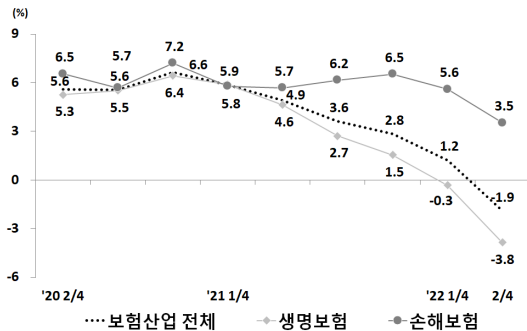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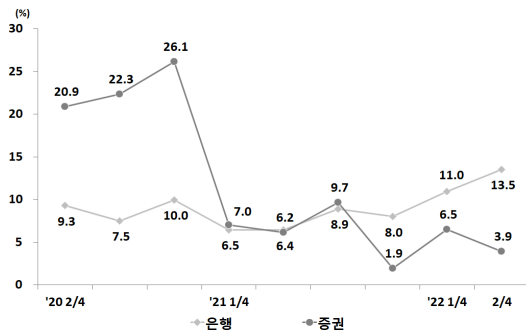
〈그림 3〉 보험산업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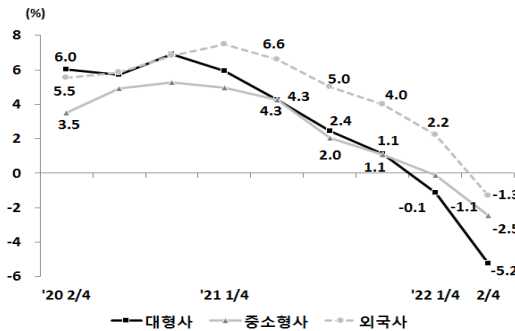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16) 보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하며,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022년 2/4분기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증가율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냄¹⁷⁾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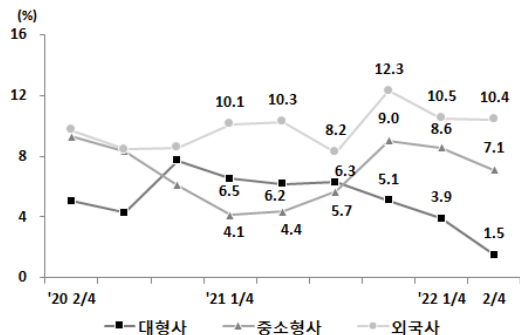
- 생명보험은 모든 그룹의 총자산이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형사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함
- 손해보험 자산 증가율의 경우 외국사가 1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형사 7.1%, 대형사 1.5% 순이었음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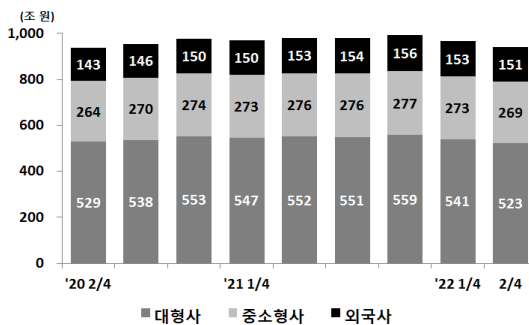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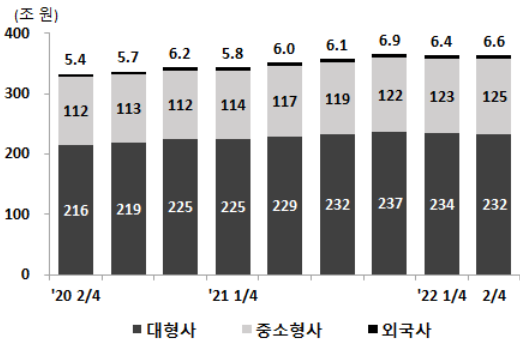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1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0개사, 외국사는 15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7) 생명보험산업은 총 23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중소형사 11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18) 손해보험산업은 총 29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5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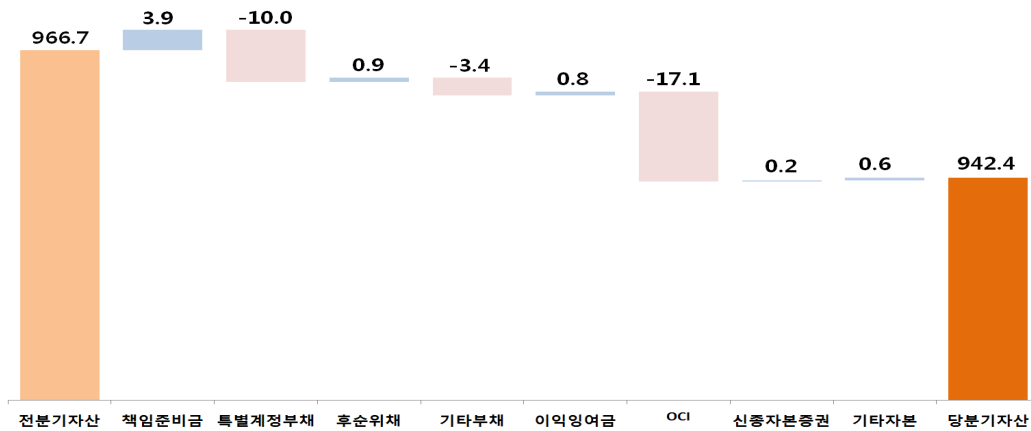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24.3조 원 감소한 942.4조 원임

-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축소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이 17.1조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계정 부채와 기타부채도 각각 10.0조 원, 3.4조 원 감소함
- 책임준비금과 후순위채는 전분기 대비 각각 3.9조 원, 0.9조 원 증가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 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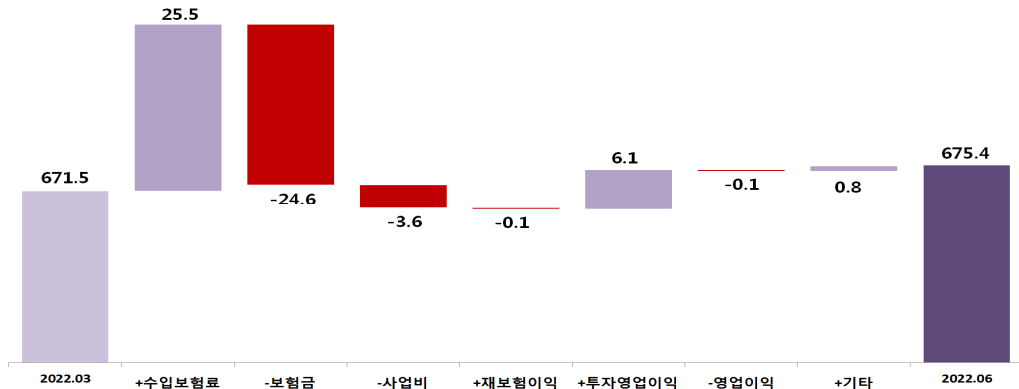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3.9조 원 증가한 675.4조 원임

-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¹⁹⁾를 차감한 금액은 2.7조 원 적자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1조 원 증가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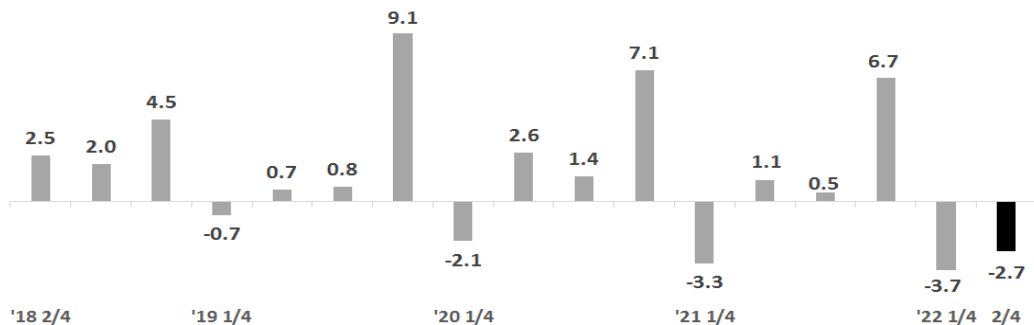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2.7조 원 적자를 나타냄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9)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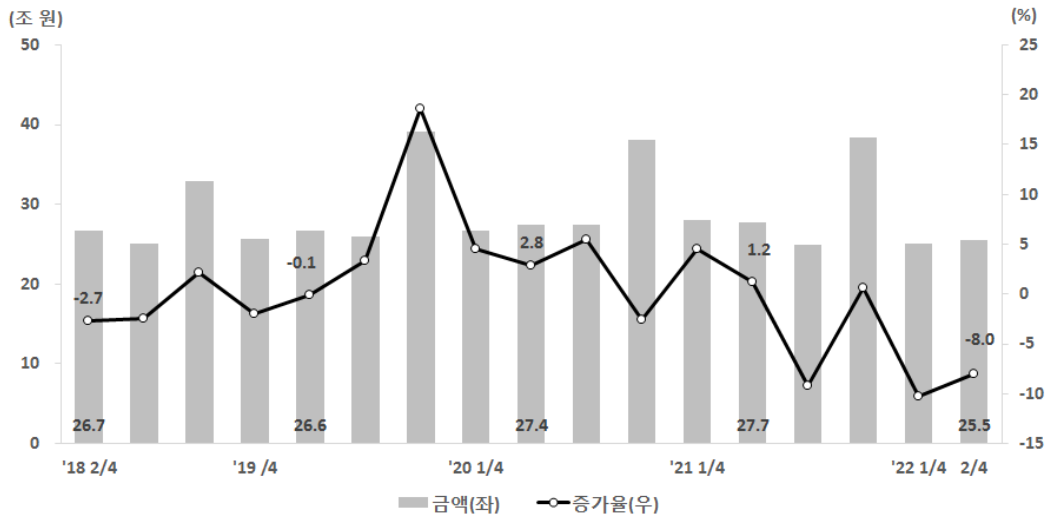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이 크게 축소되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25.5조 원을 나타냄

○ 종목별로 보면, 건강과 관련한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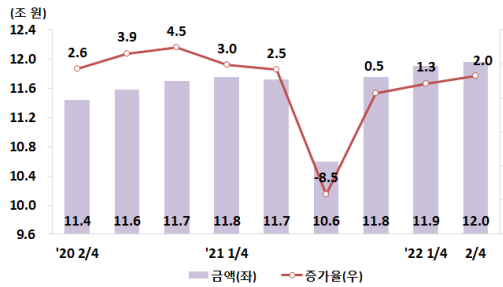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갱신보험료 증가와 건강보험 관심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2.0조 원을 나타냄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신규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6.6조 원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 경쟁력 축소와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10.4조 원을 나타냄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신규 판매가 급감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2.9조 원이며,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0.19조 원임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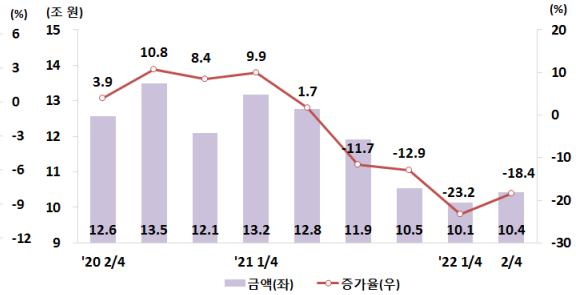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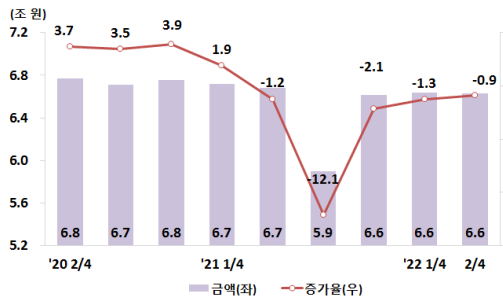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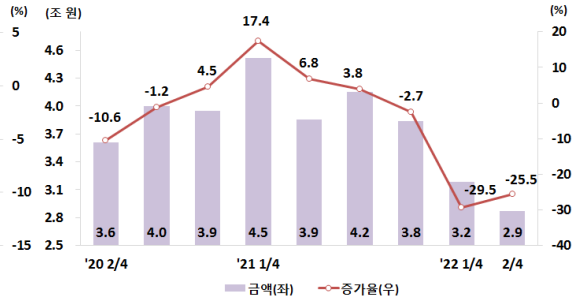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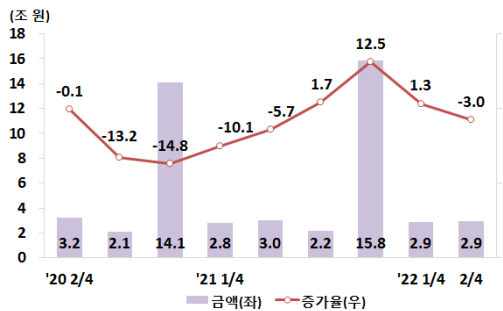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변액저축성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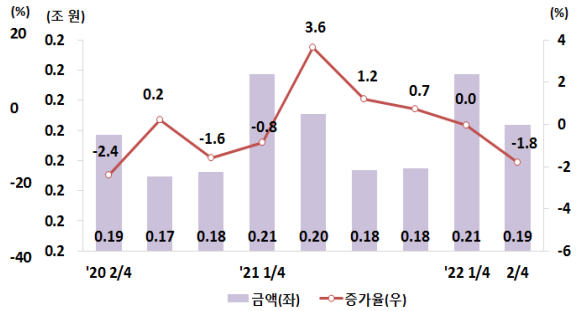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7〉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8〉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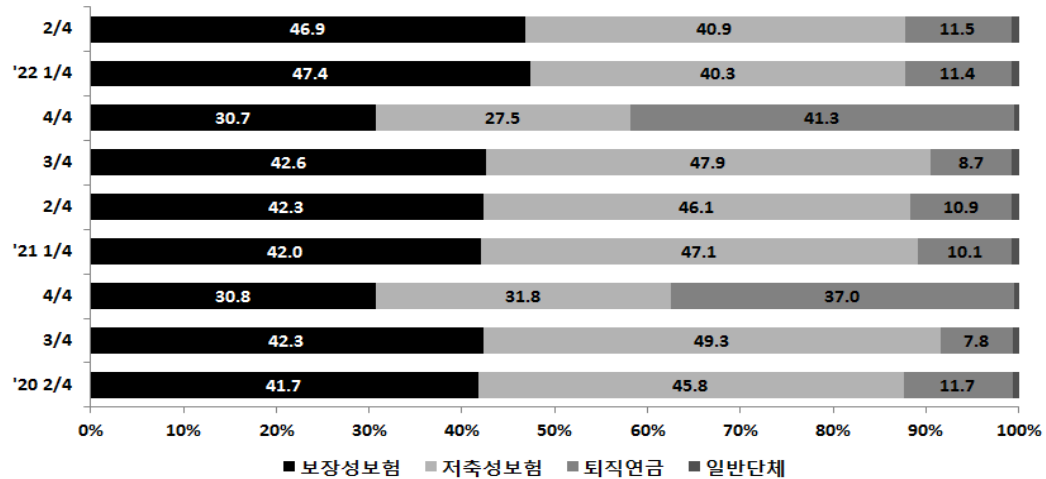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보장성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저축성보험 비중은 축소됨

- 보장성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6%p 확대된 46.9%를, 퇴직연금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6%p 확대된 11.5%를 나타냄
- 저축성보험 비중은 실적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p 축소된 40.9%를 기록함

〈그림 1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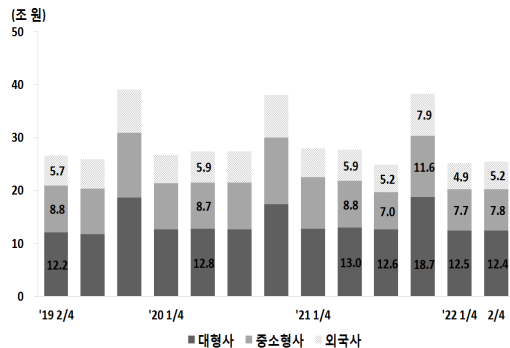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2년 2/4분기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4.5%로, 다른 그룹에 비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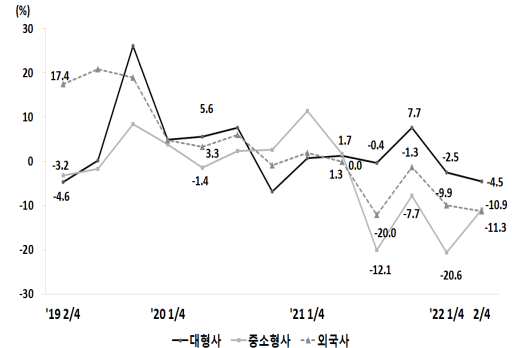
-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9%, -11.3%임

〈그림 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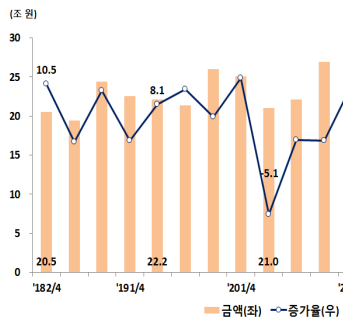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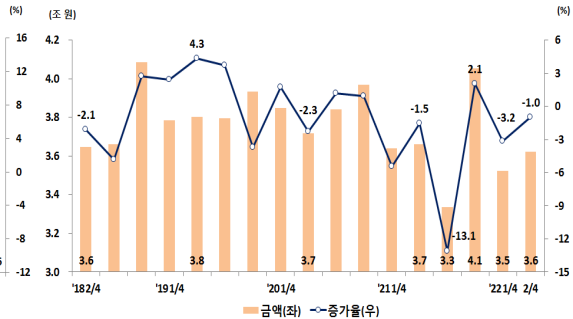
- 지급보험금은 환급금과 사망, 상해, 만기 보험금 확대에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위축 등으로 감소함

〈그림 22〉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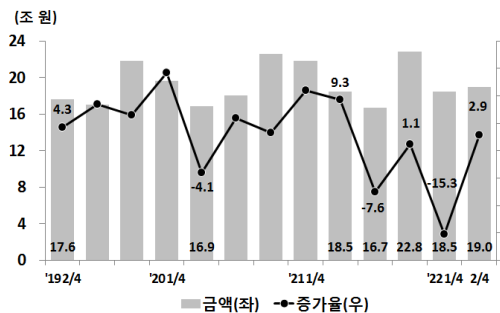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을 종목별로 보면,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 만기 및 퇴직 보험금, 배당금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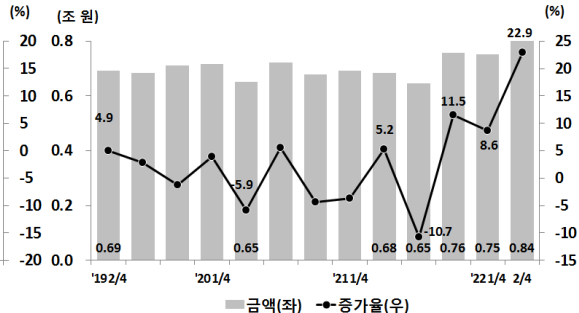
- 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사망 및 상해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함
-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은 퇴직연금 수령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배당금도 48.5% 증가함

〈그림 24〉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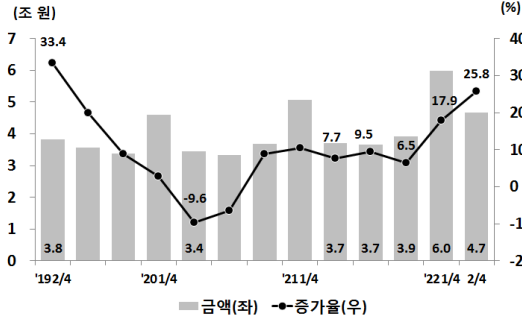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5〉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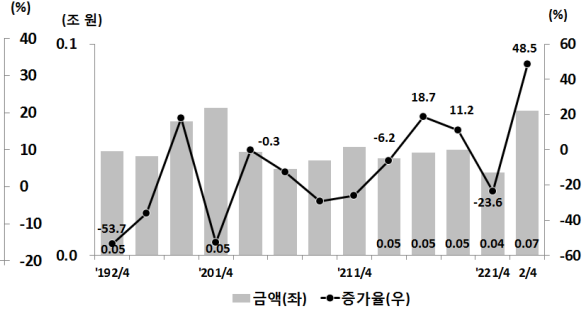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6〉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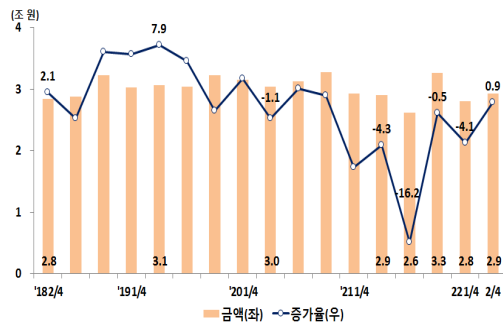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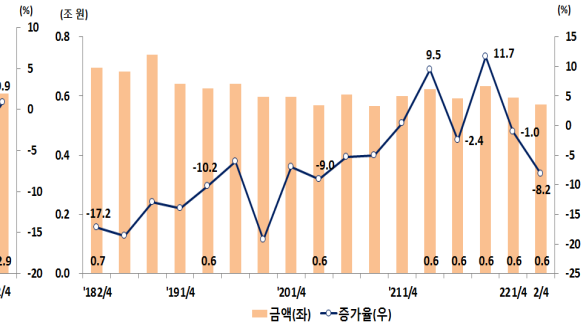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중신보험 신규 판매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신규 판매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함

〈그림 28〉 보장성보험 사업비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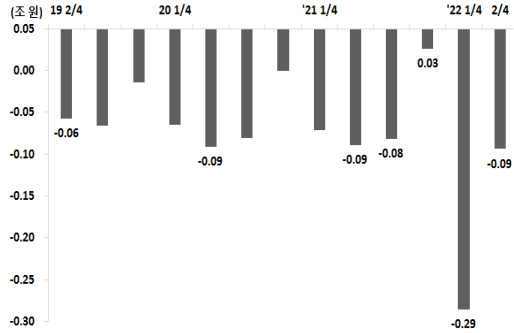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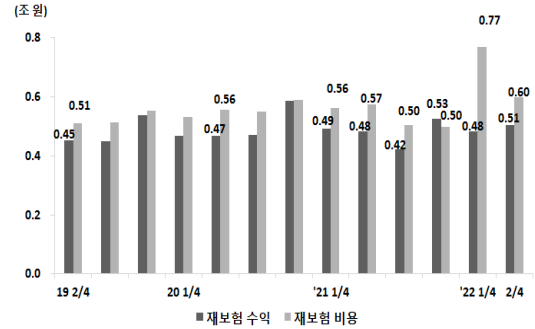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09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재보험 수익과 재보험 비용은 각각 0.51조 원과 0.60조 원임

〈그림 30〉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생명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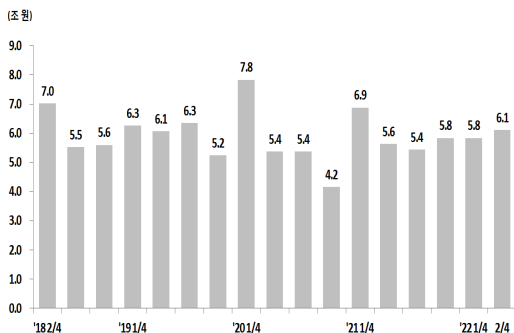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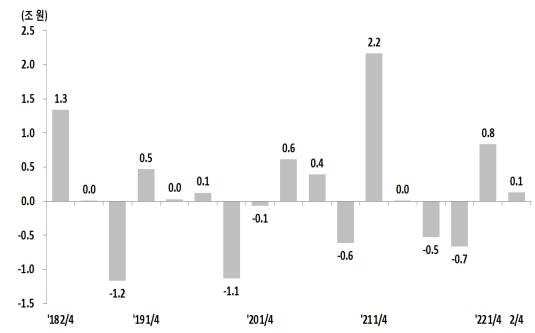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증가한 6.1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한 0.1조 원을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에도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되어 증가함

〈그림 32〉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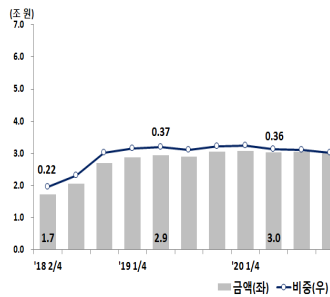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기타부채²⁰⁾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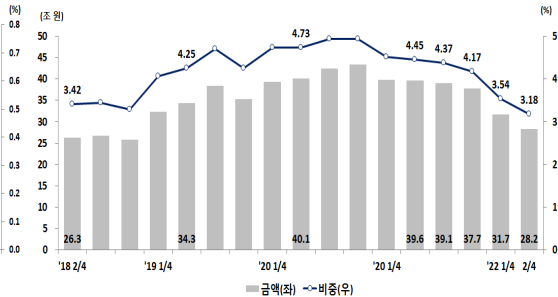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²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 원 확대된 6.2조 원을 기록함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4조 원 감소한 28.2조 원을 나타냄

〈그림 34〉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2022년 상반기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이 각각 1조 3,200억 원, 8,300억 원, 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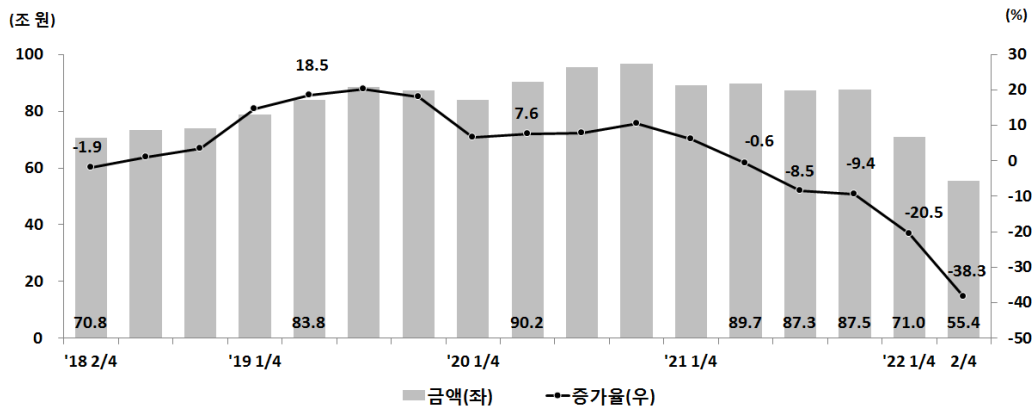
21)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3) 생명보험 자본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5.4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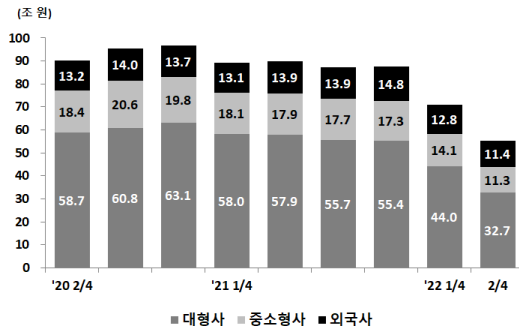
- 대형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43.6% 감소하였으며, 중소형사와 외국사 총자본도 전년 동기 대비 36.9%, 18.3% 감소함

〈그림 36〉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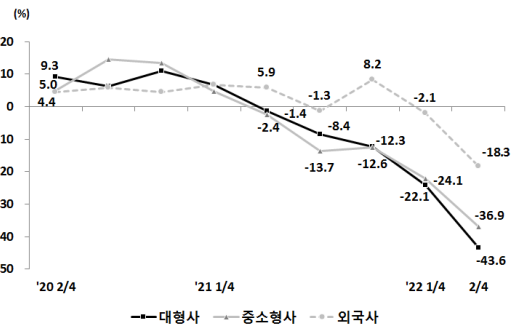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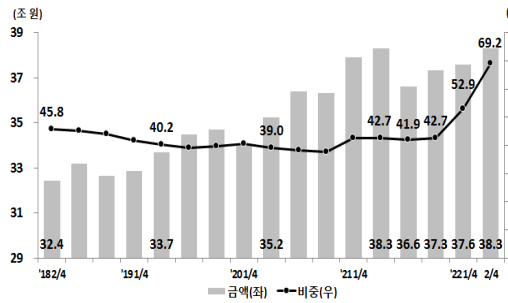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 가운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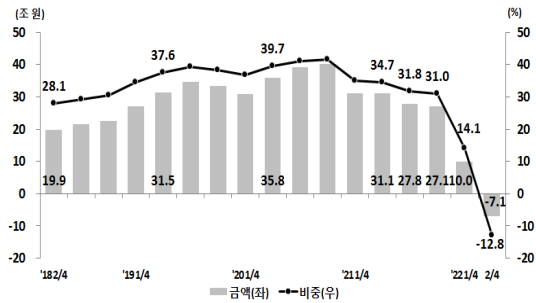
-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발생으로 -7.1조 원을 나타냄
- 신종자본증권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²²⁾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조 원 증가한 5.0조 원을 나타냈으며, 기타자본도 전년 동기 대비 3.1조 원 증가한 19.2조 원을 기록함

〈그림 39〉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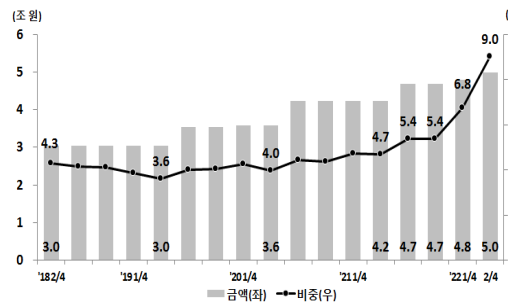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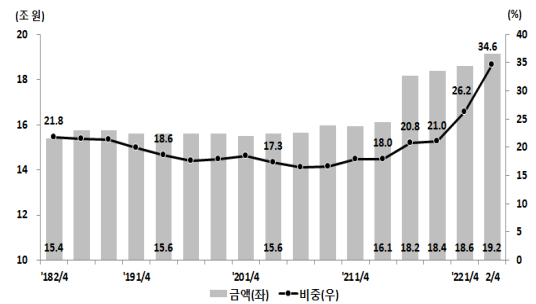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1〉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2) 2022년 상반기 교보생명, DGB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6,250억 원, 950억 원, 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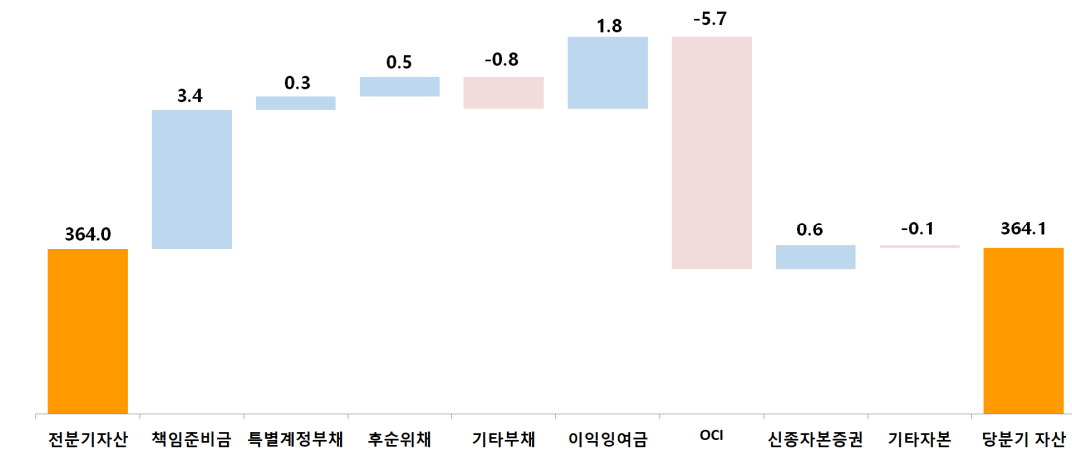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침

- 금리 상승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은 5.7조 원 감소하였으나, 책임준비금은 3.4조 원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도 1.8조 원 확대됨

〈그림 43〉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 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text{책임준비금전입액} + \text{기타}$$

$$= [\text{보험영업이익}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 [(\text{수입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사업비}) + (\text{재보험수익} - \text{재보험비용})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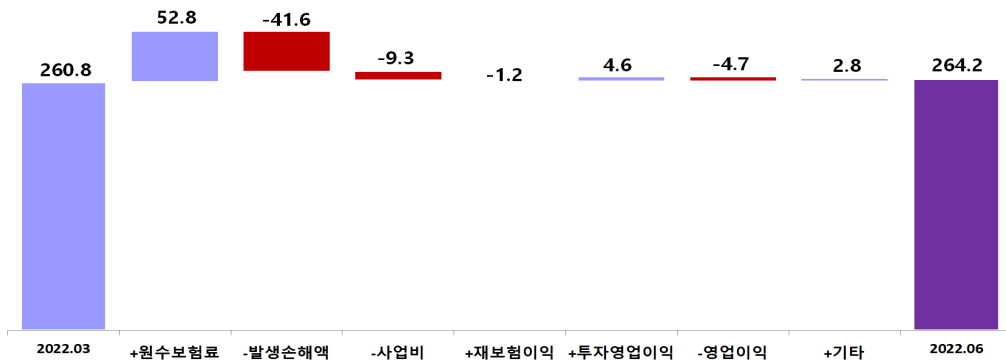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3.4조 원 증가함

-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²³⁾를 차감한 금액은 책임준비금 증가에 1.9조 원 기여함
- 투자영업이익과 기타(LAT 추가 적립 등)는 책임준비금 증가에 각각 4.6조 원, 2.8조 원 기여함

〈그림 44〉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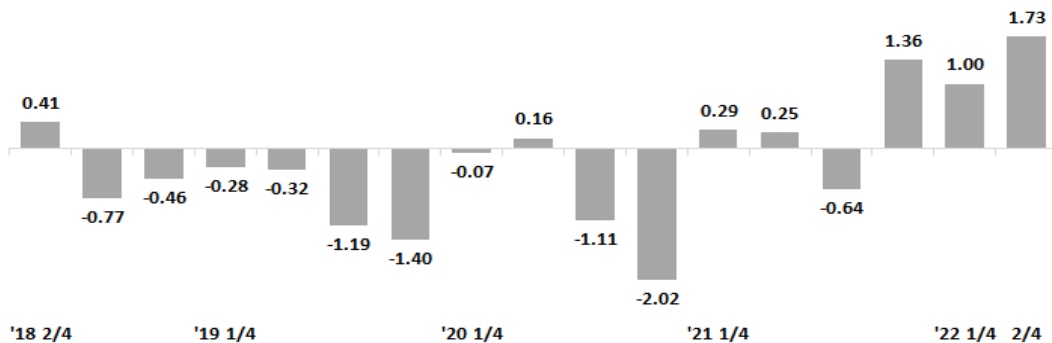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원수보험료 확대와 손해율 개선으로 1.7조 원 흑자를 기록함

〈그림 45〉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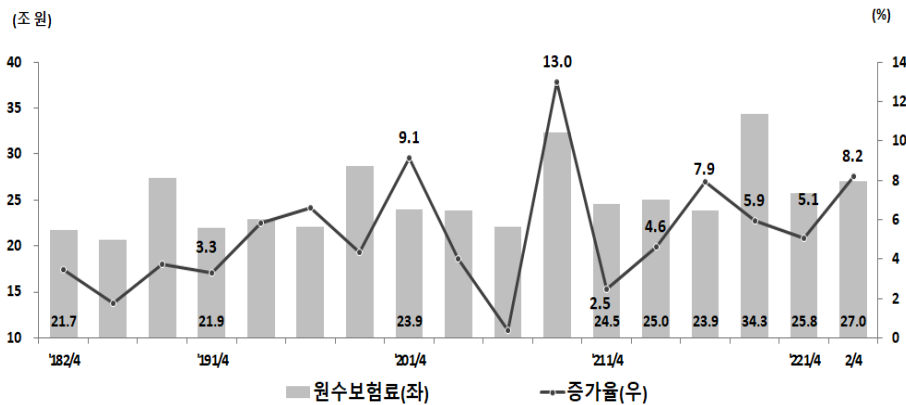
23)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고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7.0조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갱신보험료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5.3조 원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조정²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친 5.3조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3.3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0.5조 원을 나타낸 반면, 퇴직연금은 일부 회사의 시장 재진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5% 증가한 2.6조 원을 나타냄

〈그림 4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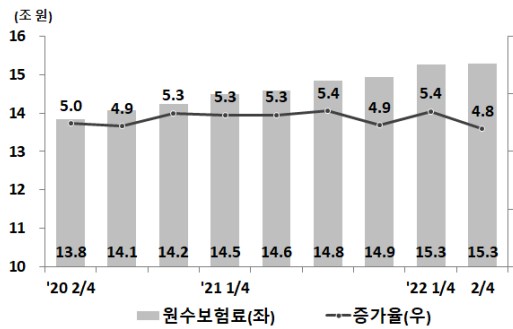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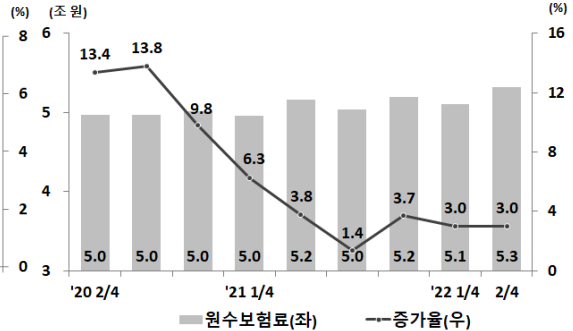
24) 2022년 4월 주요 손해보험회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약 1.2~1.4% 인하함

〈그림 47〉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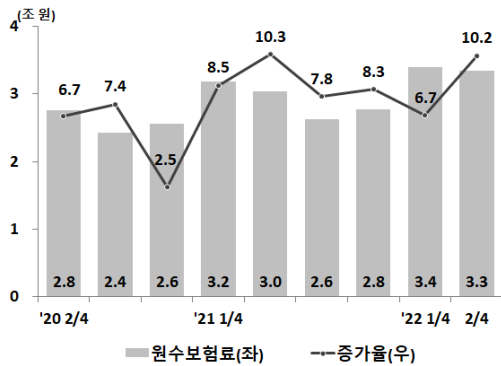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8〉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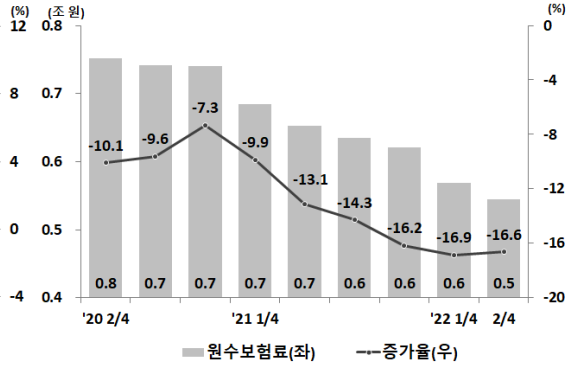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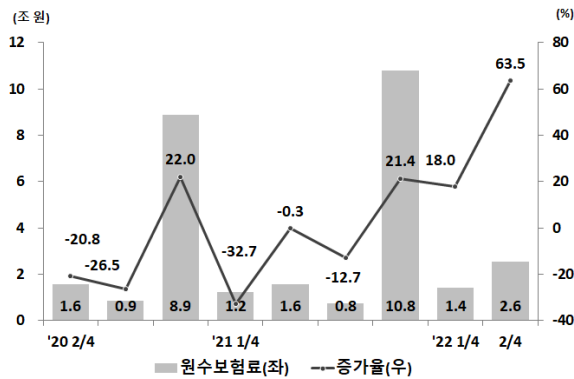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0〉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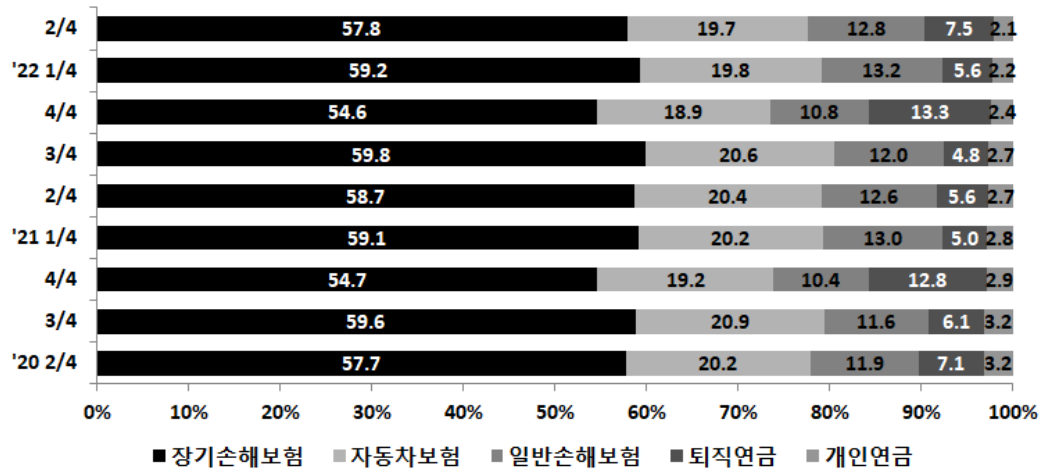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가운데 퇴직연금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짐

- 퇴직연금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퇴직연금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1.9%p 확대된 7.5%를 나타냈으며,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양호한 보험료 성장세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확대된 12.8%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축소된 57.8%, 자동차보험 비중은 보험료 성장세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축소된 19.7%를 나타냄

〈그림 52〉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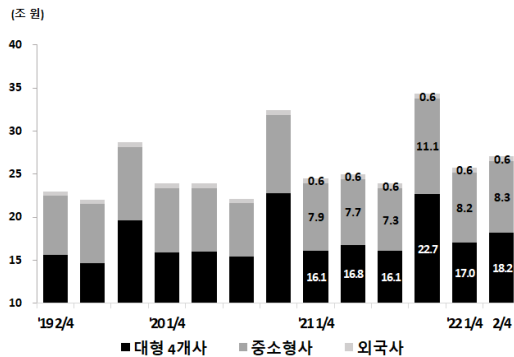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 유형별로 보면,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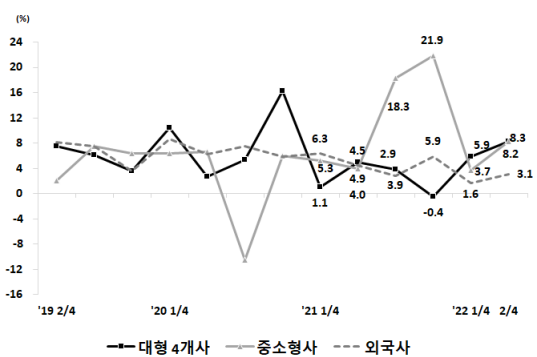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8.3%, 8.2%이며, 외국사의 증가율은 3.1%임

〈그림 5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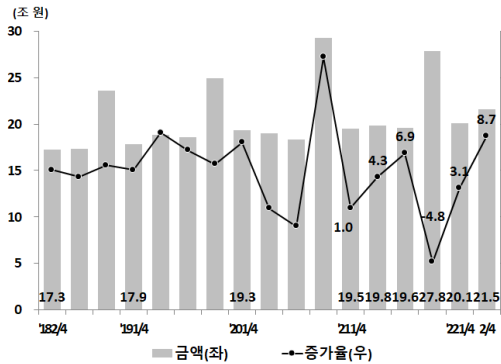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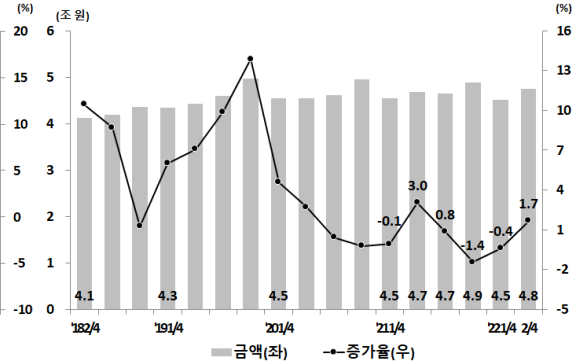
- 발생손해액은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그림 55〉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6〉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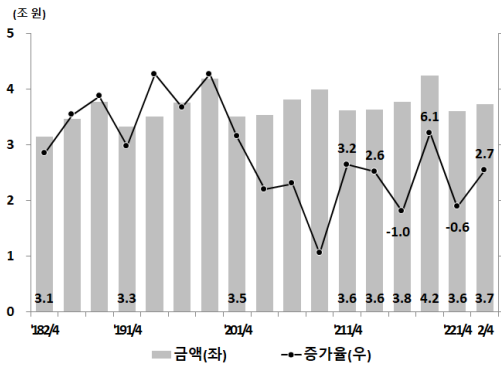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2년 2/4분기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증가한 반면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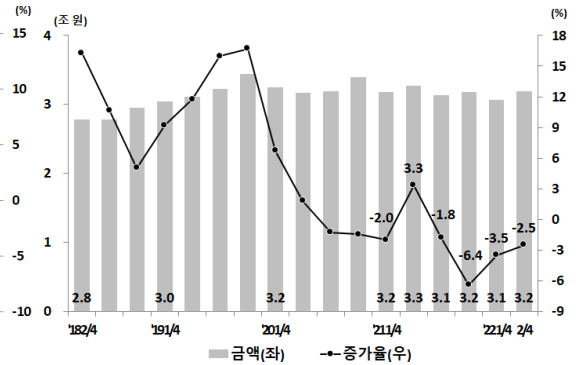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소폭 완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질병 및 상해보험 신규 판매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함

〈그림 57〉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8〉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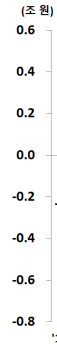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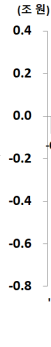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의 경우 재보험 수익은 감소하고 재보험 비용은 증가하면서 0.63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59〉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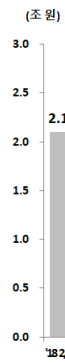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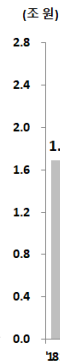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 규모는 모두 2.4조 원임
 - 투자영업이익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 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 원 증가함

〈그림 61〉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2〉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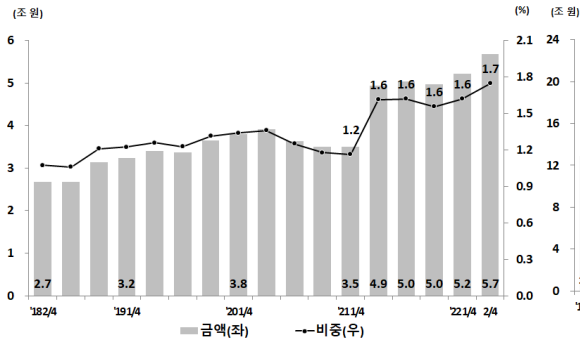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²⁵⁾의 비중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0.1%p씩 확대되어 각각 1.7%, 6.0%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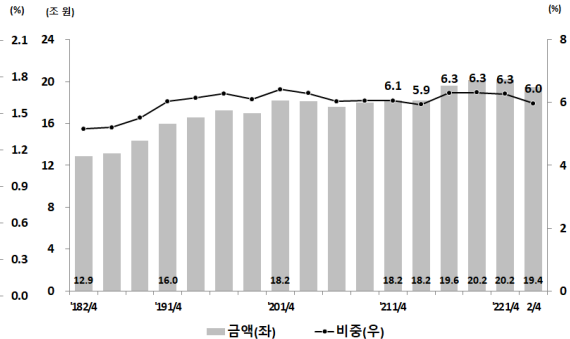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²⁶⁾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조 원 확대된 5.7조 원을 나타냄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조 원 증가한 19.4조 원임

〈그림 63〉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5) 2022년 상반기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1,400억 원, 85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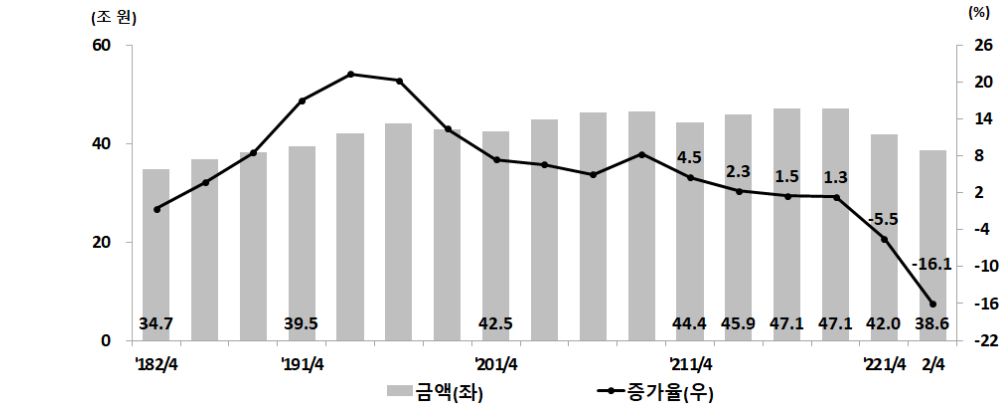
26)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3) 손해보험 자본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한 38.6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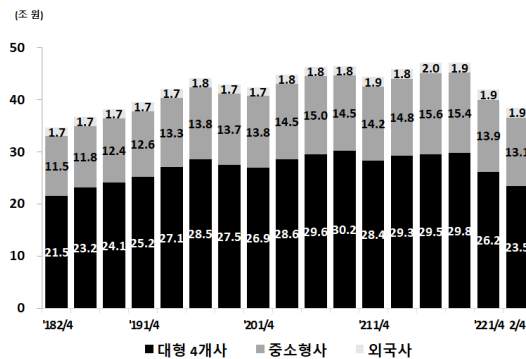
-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대형사와 중소형사 총자본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기
타포괄손익누계액(OCI) 감소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8%, 11.5% 감소함

〈그림 65〉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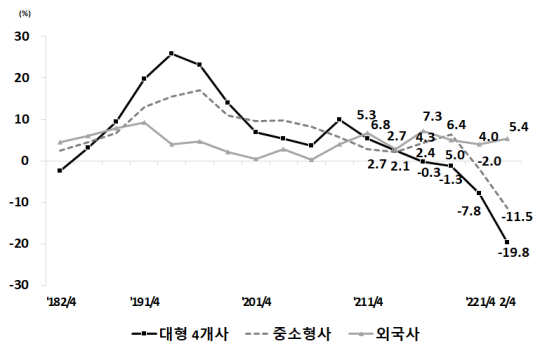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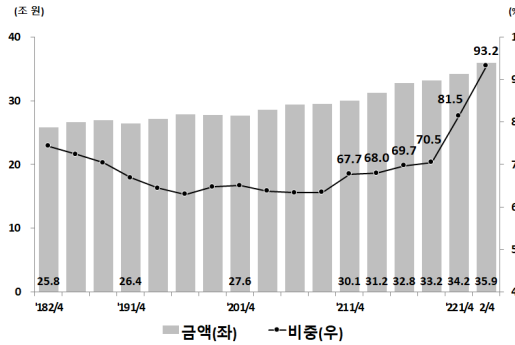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총자본 가운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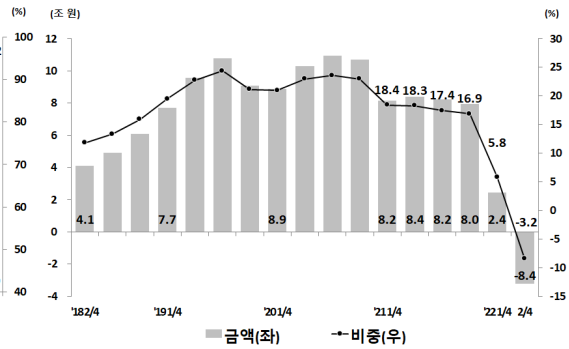
-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8.4조 원을 나타냄
-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 원 증가한 35.9조 원임

〈그림 6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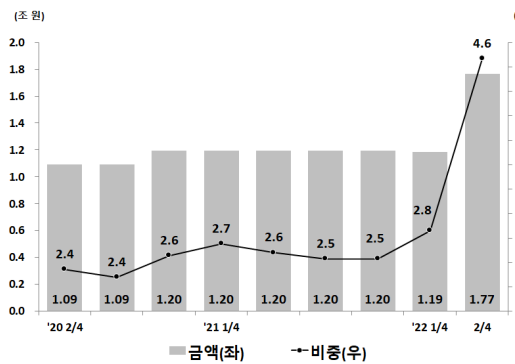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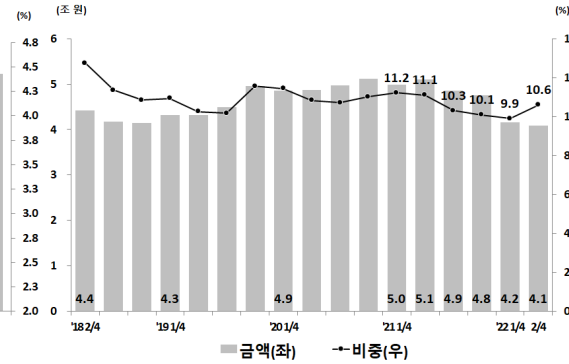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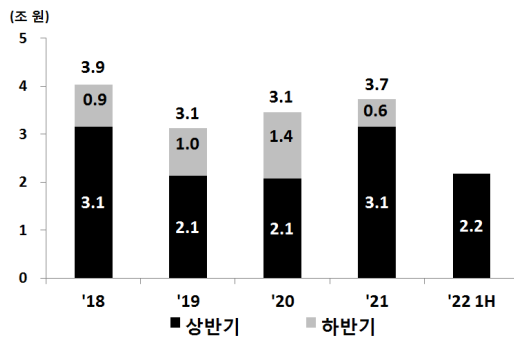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7% 감소한 2.2조 원이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3.4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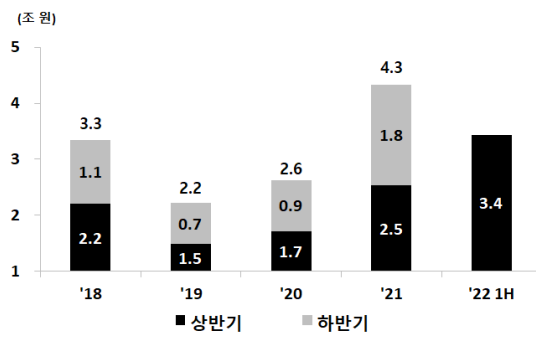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신계약 부진 등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악화되었으며, 금융자산 처분이익 및 배당수익 감소²⁷⁾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축소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되었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확대되면서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함

〈그림 7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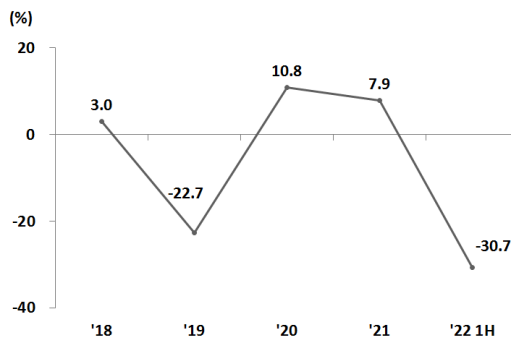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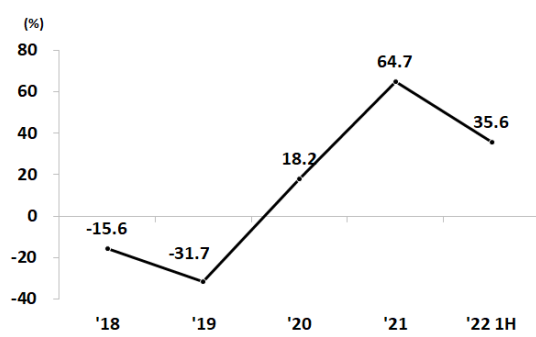
〈그림 7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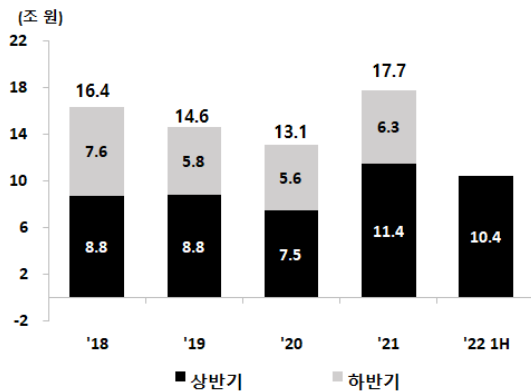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7) 전년 동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특별배당(8,019억 원) 기저효과에 따른 배당수익 감소를 의미함

○ 2022년 상반기 은행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10.4조 원을, 증권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8% 감소한 3.1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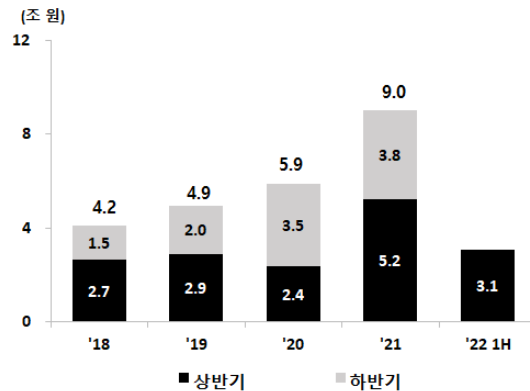
- 은행산업의 경우 이자이익 증가에도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및 유가증권평가손실 확대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증권산업의 경우 주가 하락 등으로 수수료 수입과 펀드 처분이익이 감소하였고 금리 상승으로 채권 처분손실도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그림 76〉 은행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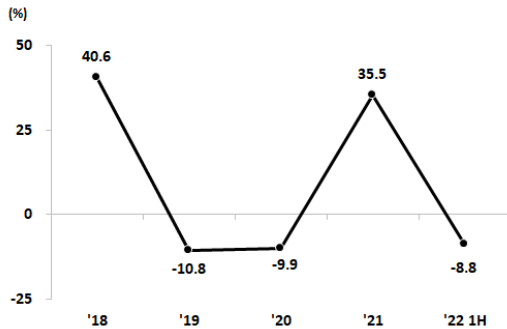
주: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7〉 증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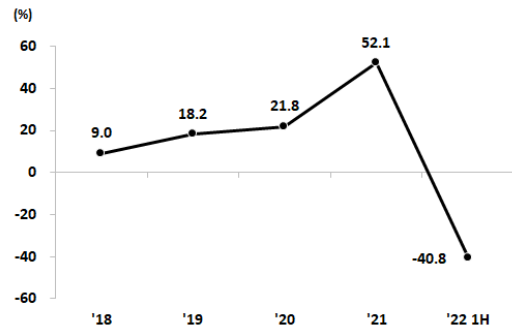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8〉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9〉 증권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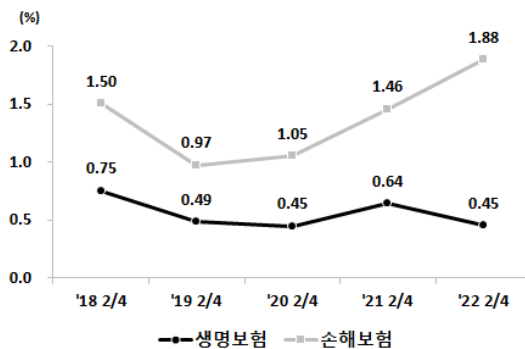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나. ROA, ROE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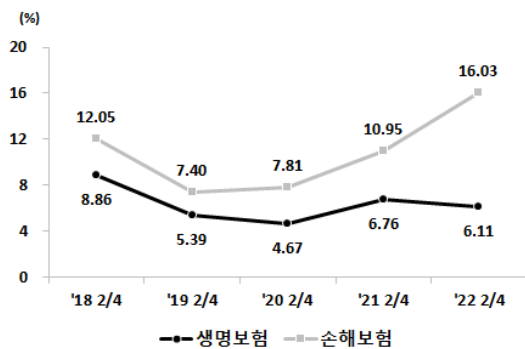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ROA는 0.45%로 전년 동기 대비 0.19%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 ROA는 1.88%로 전년 동기 대비 0.42%p 상승함
- 생명보험산업 ROE는 6.11%로 전년 동기 대비 0.65%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 ROE는 16.03%로 전년 동기 대비 5.08%p 상승함

〈그림 80〉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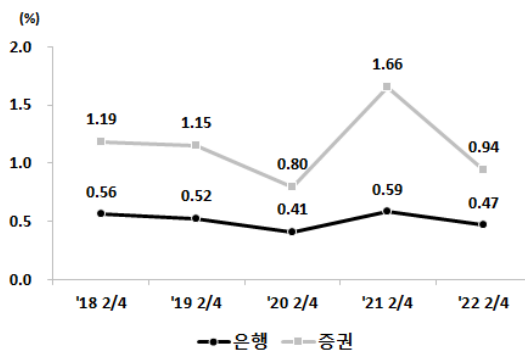
〈그림 81〉 보험산업 RO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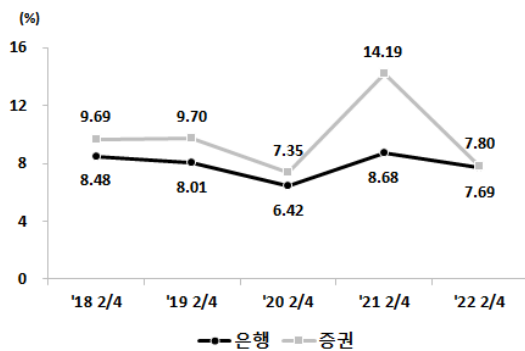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은행 및 증권산업의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그림 82〉 은행 및 증권산업 ROA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83〉 은행 및 증권산업 ROE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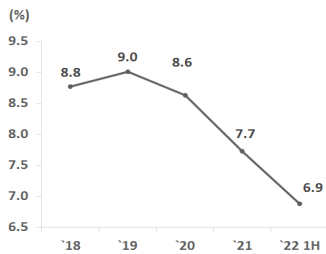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해지율²⁸⁾은 2021년 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사업비율과 보험금 지급률²⁹⁾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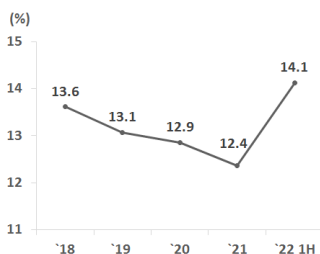
- 해지율은 전년 말 대비 0.8%p 감소한 6.9%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외국사의 해지율 감소폭이 큼
- 사업비율은 사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말 대비 1.7%p 상승한 14.1%를 나타냄
-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98.5%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의 보험금 지급률 상승이 크게 나타남

〈그림 84〉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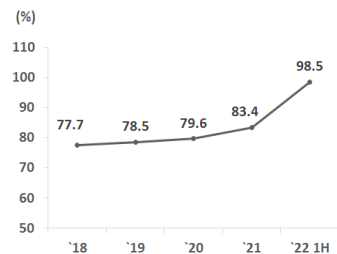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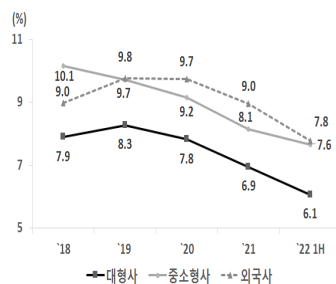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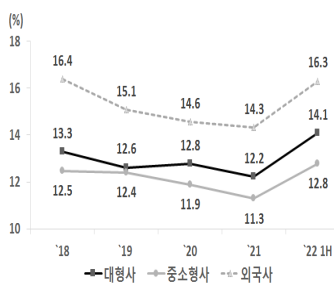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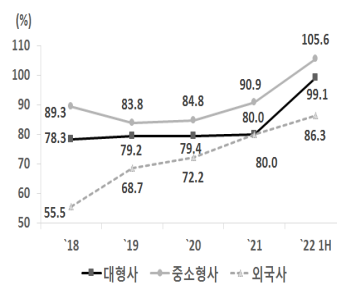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8〉 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9〉 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8)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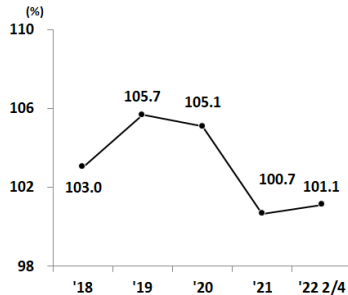
29)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손해보험

○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 말 대비 0.4%p 상승한 101.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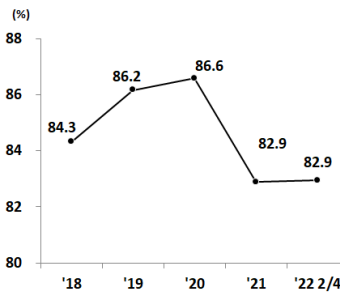
- 손해율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말 대비 3.9%p 하락함
- 사업비율은 대부분 종목의 사업비율 하락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업비율이 상승하여 전년 말 대비 0.4%p 상승한 18.2%를 기록함

〈그림 90〉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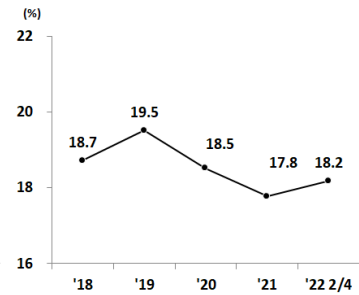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1〉 손해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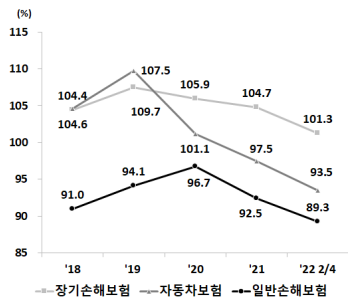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2〉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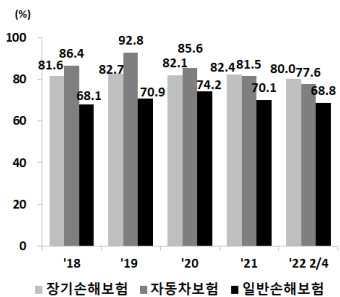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3〉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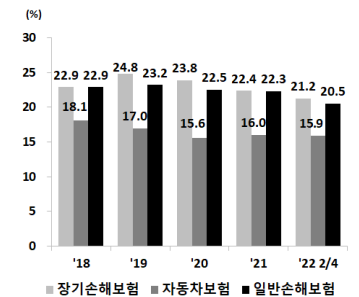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4〉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5〉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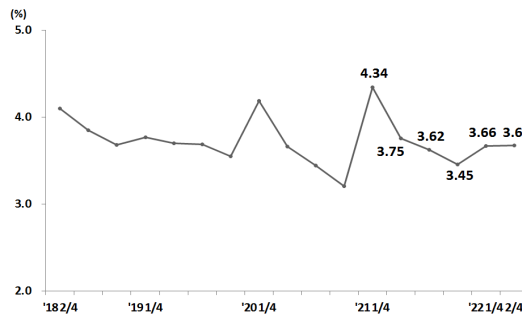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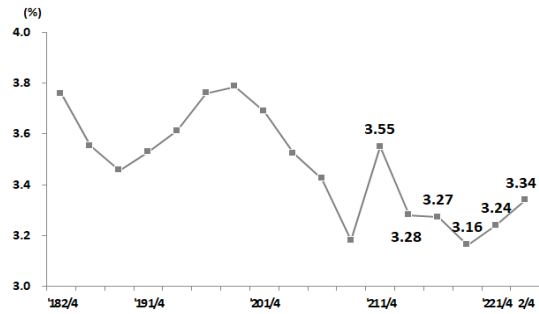
-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융자산처분이익과 배당수익 축소 등 운용자산 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08%p 하락한 3.67%를 나타냄
-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관련 운용자산의 이익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p 상승한 3.34%를 기록함

〈그림 96〉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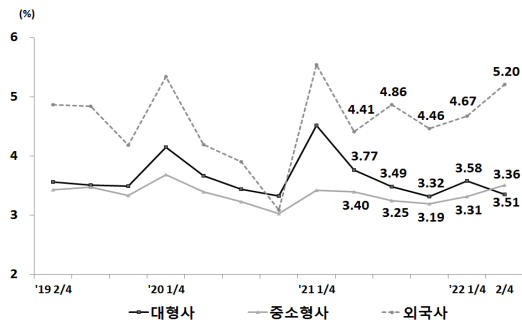
〈그림 97〉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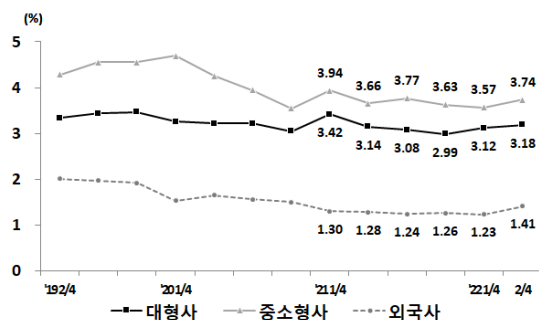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2/4분기 대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9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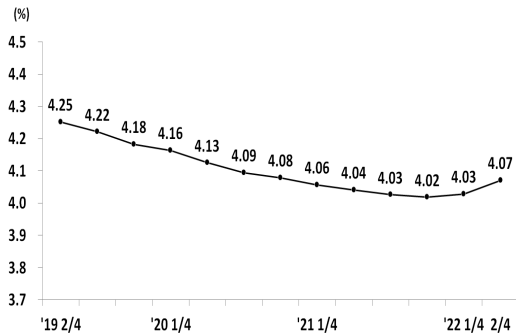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07%로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임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운용자산이익률 3.67%보다 0.40%p 높았음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각각 4.38%, 3.51%, 4.11%로, 중소형사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이번 분기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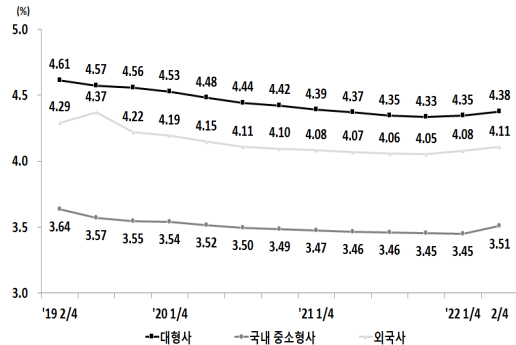
〈그림 100〉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 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 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이익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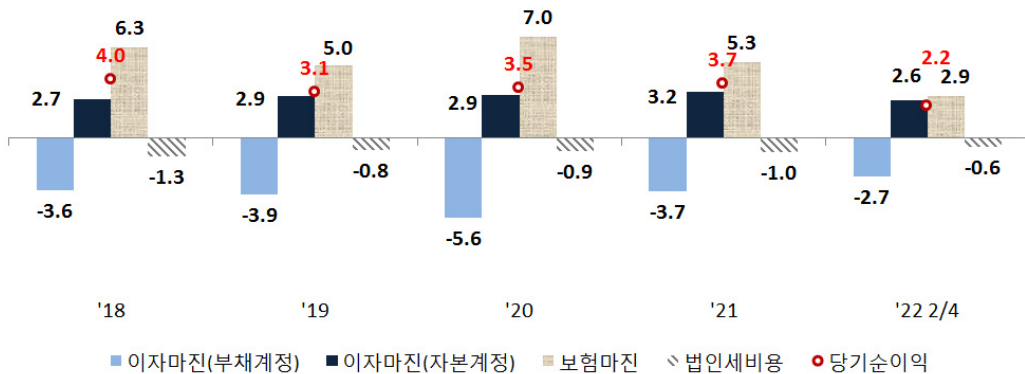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이자마진과 보험마진 규모는 각각 -0.1조 원, 2.9조 원이며, 당기순 이익은 2.2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2.6조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아 -2.7조 원을 기록함
- 보험마진은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2.9조 원을 기록함

〈그림 10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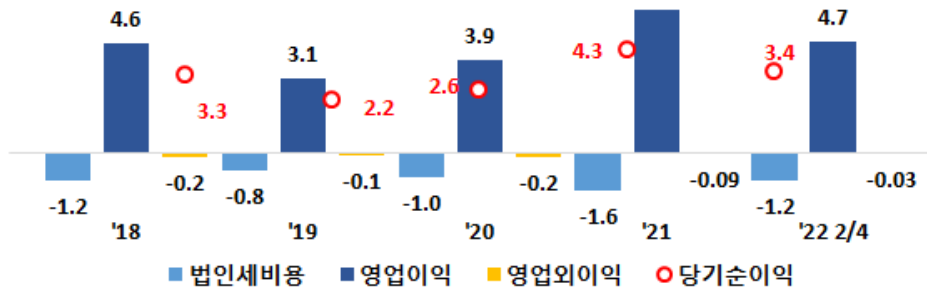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당기순이익 구성

-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하락 등으로 3.4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영업 이익은 4.7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03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10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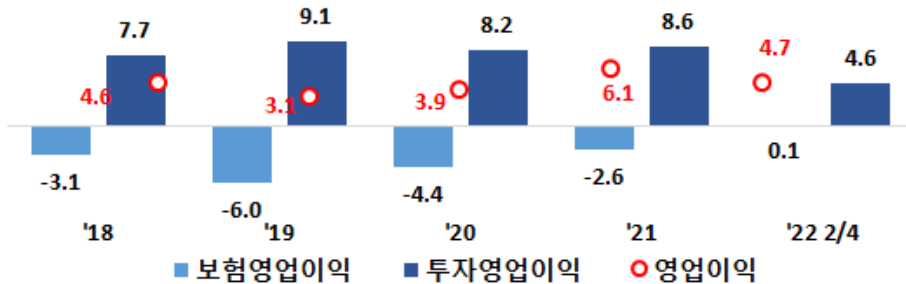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영업이익 구성

-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4.7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각각 0.1조 원, 4.6조 원 이익을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흑자를 기록하였고,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함

〈그림 104〉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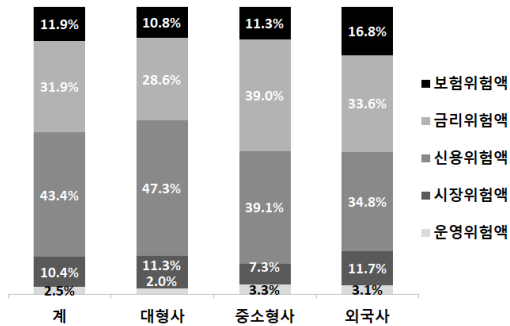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리스크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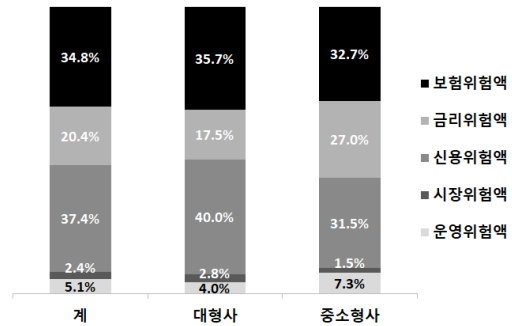
- 2022년 6월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위험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7.3%로 가장 높았고,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신용위험액과 금리위험액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는 신용위험액과 보험위험액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10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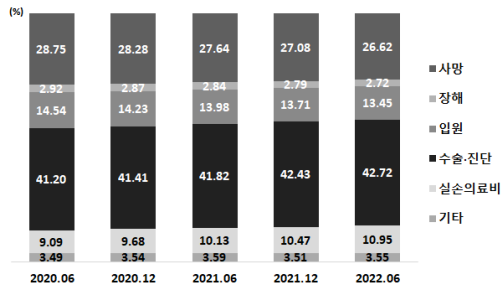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나. 보험리스크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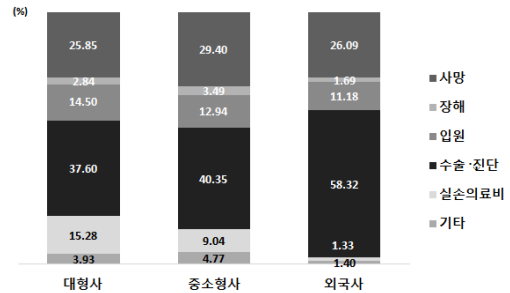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29%p, 0.48%p 증가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 보장 비중은 각각 0.46%p, 0.07%p, 0.26%p 감소함
- 외국사의 경우 수술·진단 보장 비중이 58.32%로 큰 편이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이 다소 큰 편임

〈그림 107〉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8〉 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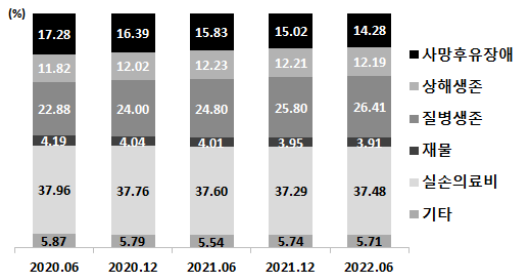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질병생존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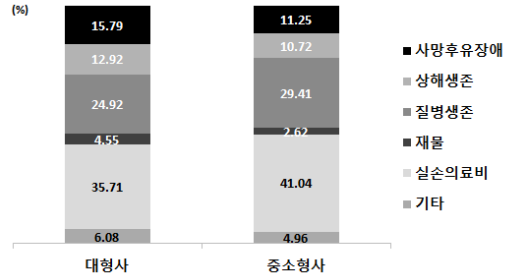
- 질병생존, 실손의료비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61%p, 0.19%p 증가하였으나 사망후유장애와 상해생존, 재물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74%p, 0.02%p, 0.04%p 감소함

〈그림 109〉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0〉 회사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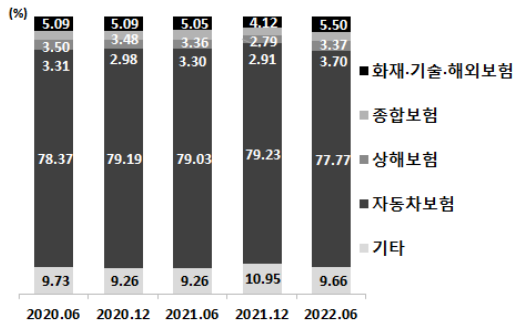
나) 자동차·일반손해보험

①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

○ 2022년 6월 말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감소한 반면, 나머지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증가함

-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1.46%p 감소한 반면,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1.38%p, 0.58%p, 0.79%p 증가함
-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이 직전 반기 대비 23.31%p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해보험 익스포저 비중은 4.5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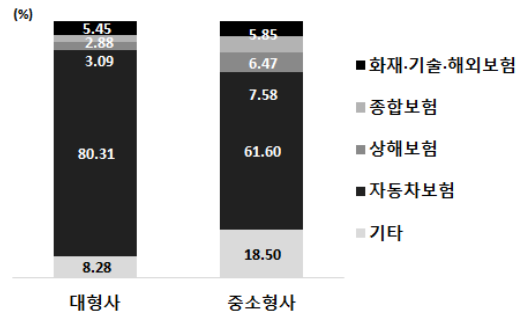
〈그림 111〉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 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2〉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 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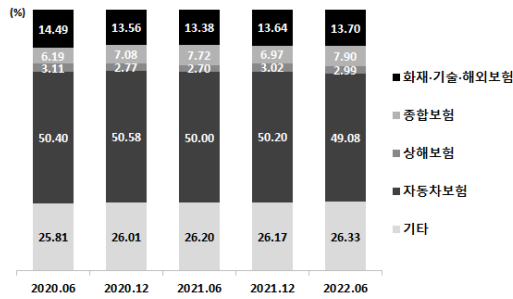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② 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

○ 2022년 6월 말 화재·기술·해외보험과 종합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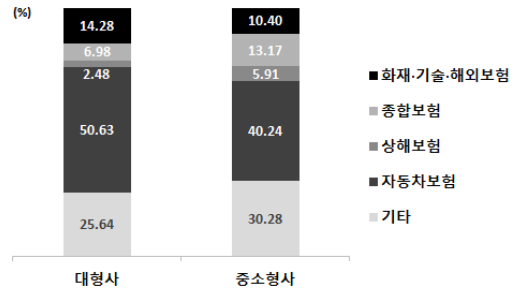
- 화재·기술·해외보험과 종합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06%p, 0.93%p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0.03%p, 1.12%p 감소함

〈그림 113〉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4〉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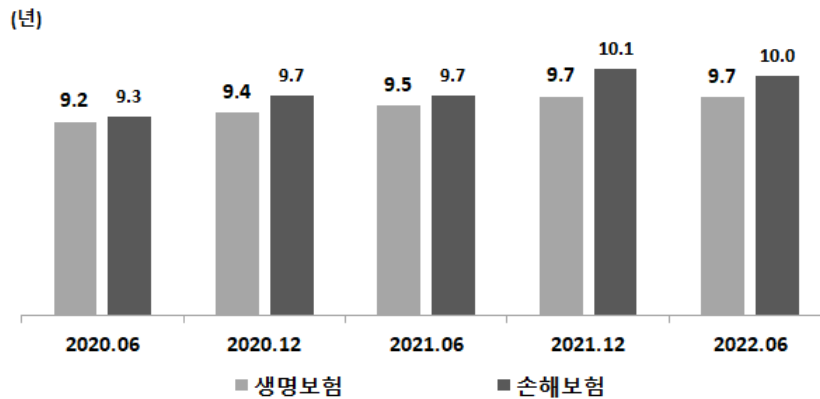
다. 자산리스크

1) 금리위험

○ 생명보험 자산듀레이션은 직전 반기와 동일한 반면, 손해보험은 0.1년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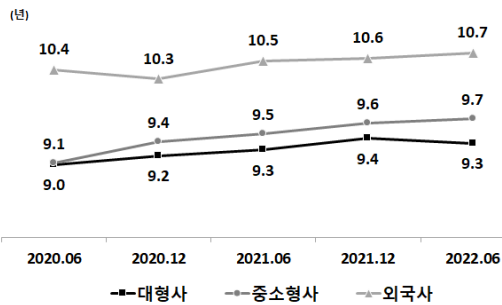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0.1년)를 중심으로 축소됨

〈그림 115〉 자산듀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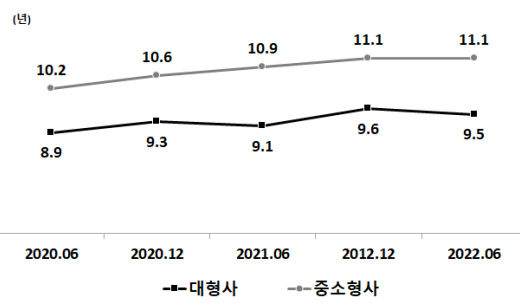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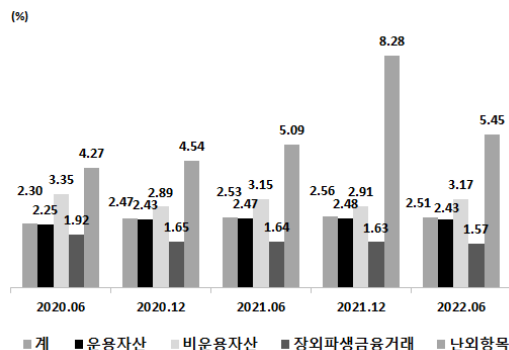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2) 신용위험

○ 생명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05%p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은 0.03%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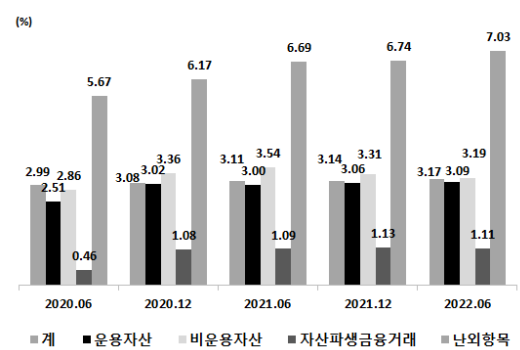
〈그림 118〉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



주: 왼쪽부터 계, 운용자산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9〉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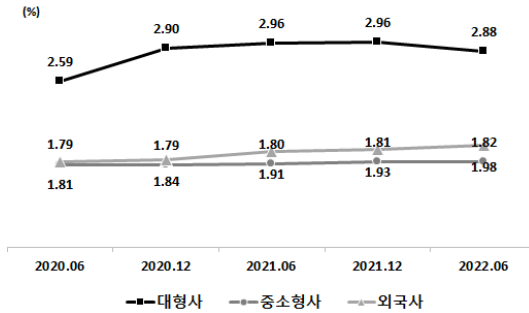
주: 왼쪽부터 계, 운용자산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의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축소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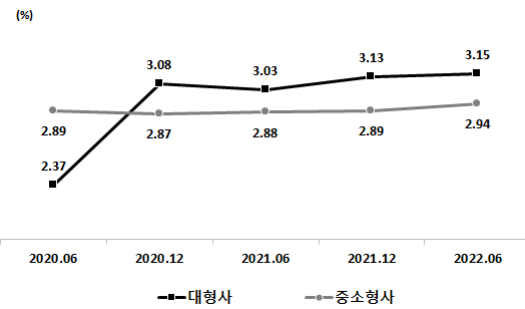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08%p 하락하며 전체 하락세를 이끈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02%p, 0.05%p 상승함

〈그림 1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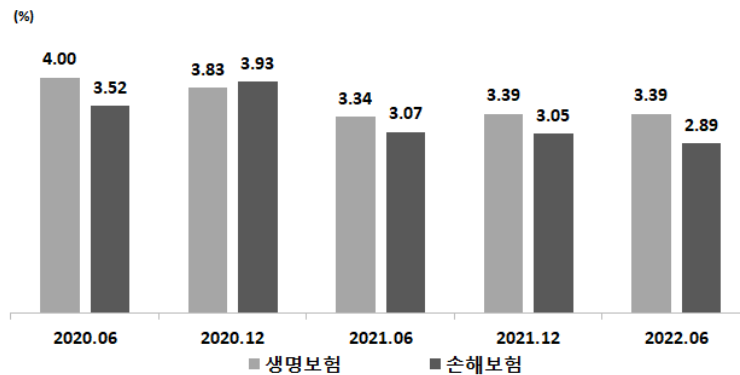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3) 시장위험

○ 생명보험 시장위험계수는 직전 반기와 동일한 반면, 손해보험은 직전 반기 대비 0.16%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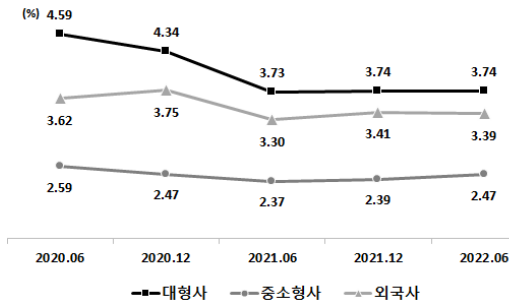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는 직전 반기 대비 0.02%p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08%p 상승함
-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시장위험계수가 0.41%p 하락하며 전체 하락세를 이끔

〈그림 122〉 시장위험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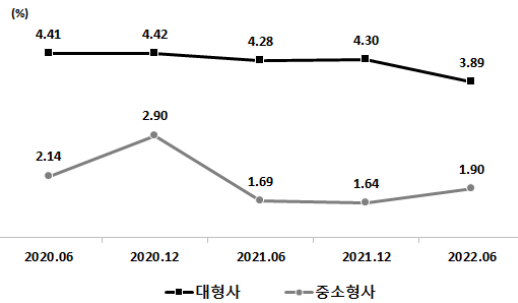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라.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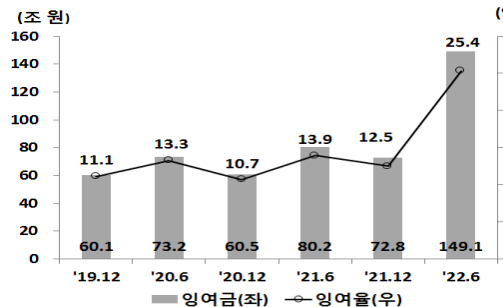
○ 2022년 6월 말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 비율은 2021년 말 대비 크게 상승함

- 2022년 상반기 LAT 잉여율은 25.4%로 전년도 말 12.5%에 비해 12.9%p 증가함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2년 6월 말 외국사 LAT 잉여율의 상승이 대형사 및 중소형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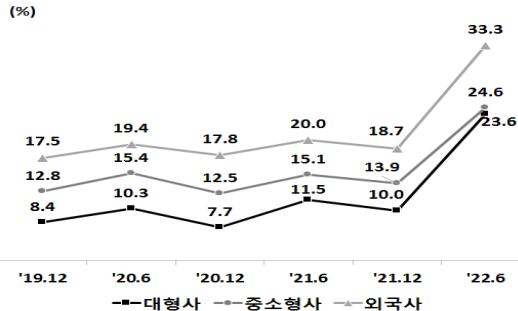
- 대형사의 LAT 잉여율은 23.6%, 중소형사는 24.6%, 외국사는 33.3%로 전년 대비 각각 13.6%p, 10.7%p, 14.6%p 증가함

〈그림 125〉 생명보험회사 LAT 잉여율



자료: 경영공시

〈그림 12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LAT 잉여율



자료: 경영공시

4. 시장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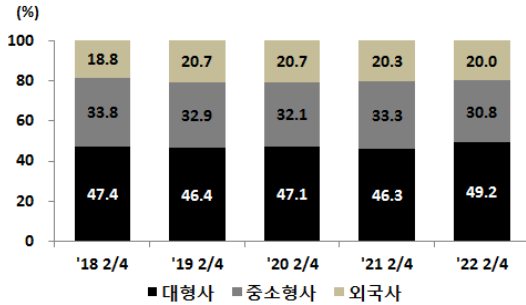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2022년 2/4분기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대형사 점유율은 보장성보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p 증가한 49.2%를 나타냄
 - 중소형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저축보험 및 변액보험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p, 0.3%p 감소한 30.8%, 20.0%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 점유율은 축소됨
 - 대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연금보험 신규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p 증가한 41.3%로 나타났고, 외국사 점유율은 22.2%로 1.8%p 확대됨
 -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특히 변액보험 신규 판매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8.3%p 감소한 36.5%를 나타냄
- 2022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³⁰⁾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한 1,043 이고,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60 하락한 1,19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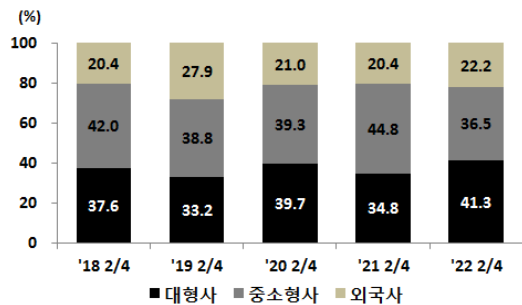
30)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12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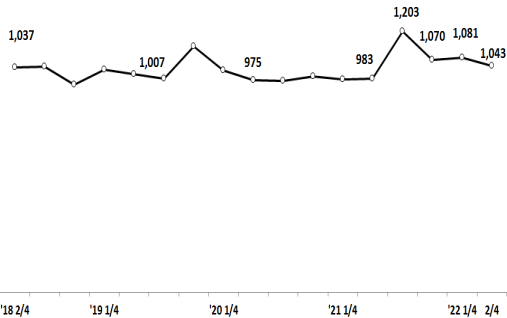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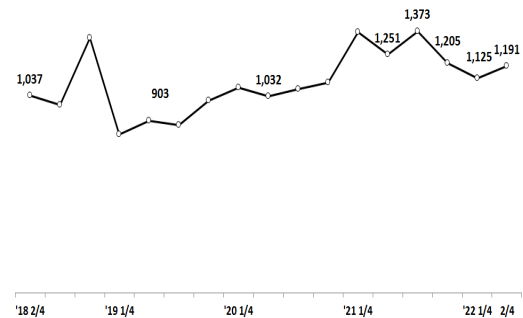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하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0〉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하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된 반면 중소형사는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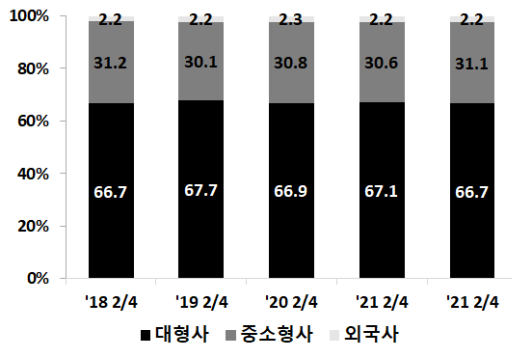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67.1%에서 66.7%로 축소되었고,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30.6%에서 31.1%로 확대됨

○ 2022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중소형사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

-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43.2%로 전년 동기 대비 8.6%p 확대됨
-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8.3%p 축소된 55.7%였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p 축소된 1.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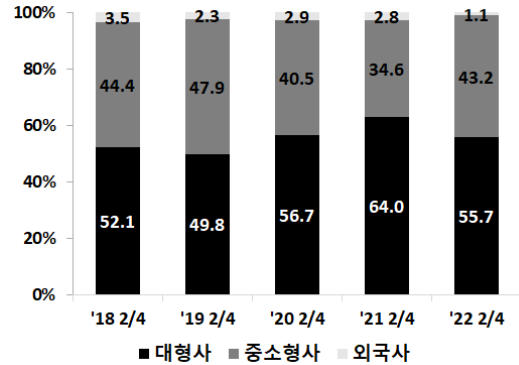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38로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하였고,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417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함

〈그림 13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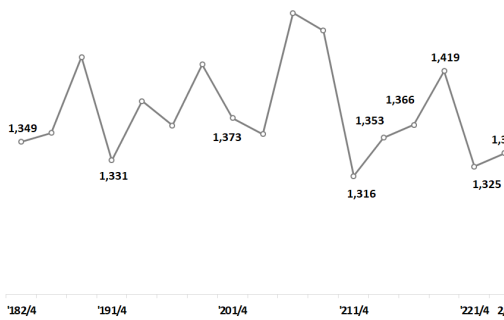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2〉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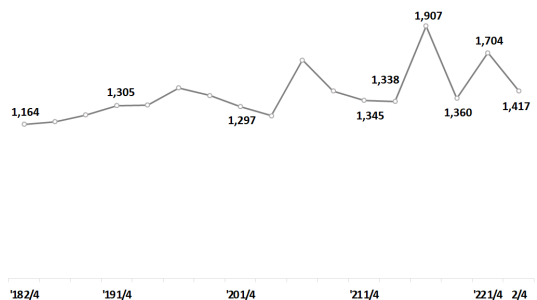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4〉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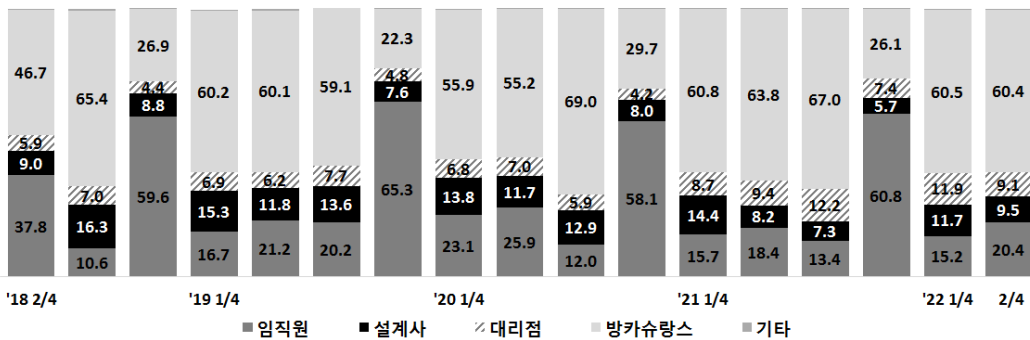
1) 생명보험 판매채널

○ 2022년 2/4분기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축소됨³¹⁾

- 설계사 채널 비중은 연금보험 신규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증가한 9.5%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 채널 및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판매 부진 등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p, 0.3%p 감소한 60.4%, 9.1%를 기록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퇴직연금 신규 가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p 확대된 20.4%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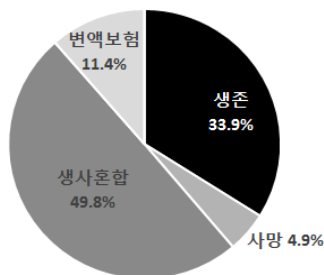
〈그림 135〉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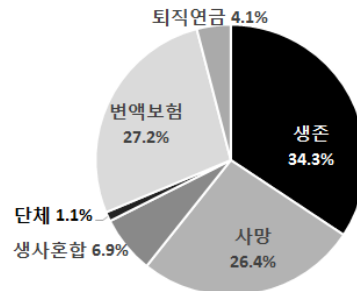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6〉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22년 2/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7〉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2022년 2/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1)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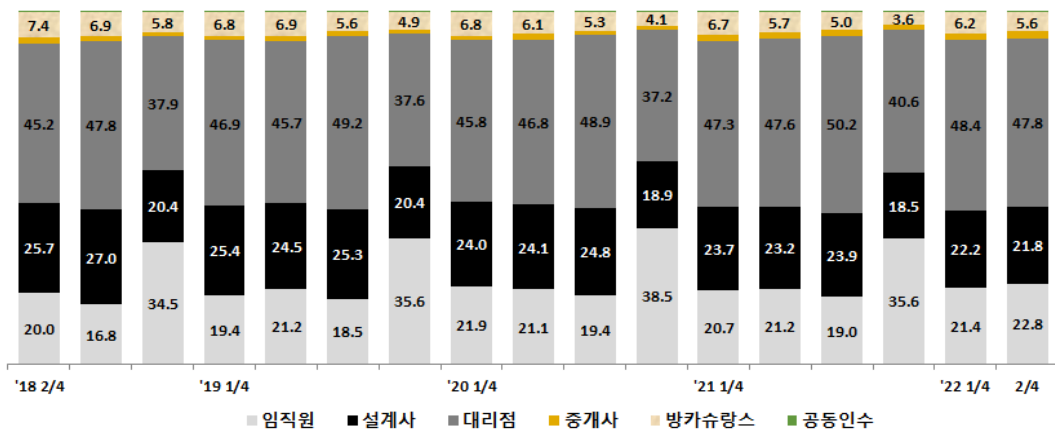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판매채널

○ 2022년 2/4분기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설계사 채널 비중은 축소됨

-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확대된 47.8%를, 설계사 채널 비중은 자동차보험 및 개인연금 판매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1.4%p 축소된 21.8%를 기록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p 확대된 22.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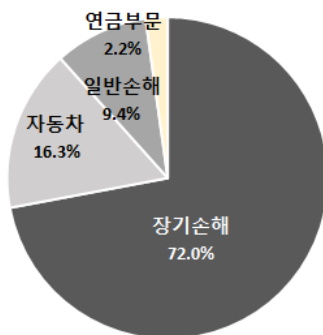
〈그림 138〉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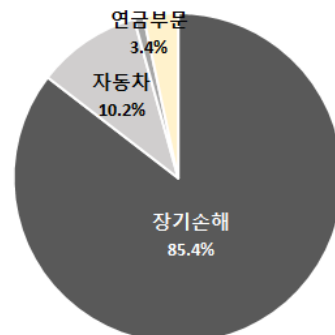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9〉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2022년 2/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0〉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2022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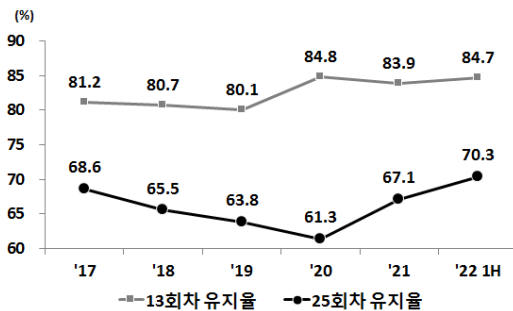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계약 관리

○ 2022년 상반기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1년에 비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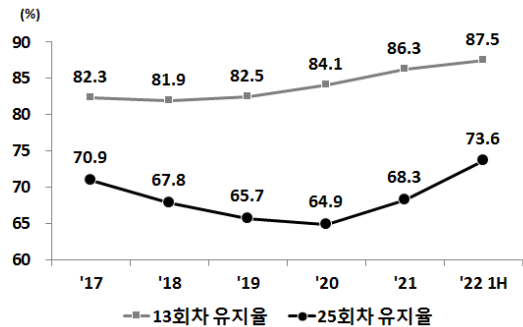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0년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 전환됨

〈그림 141〉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42〉 손해보험 계약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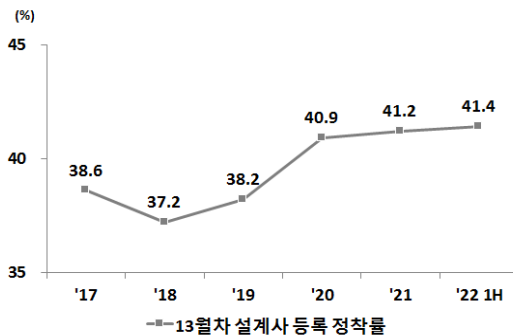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 2022년 상반기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생명보험은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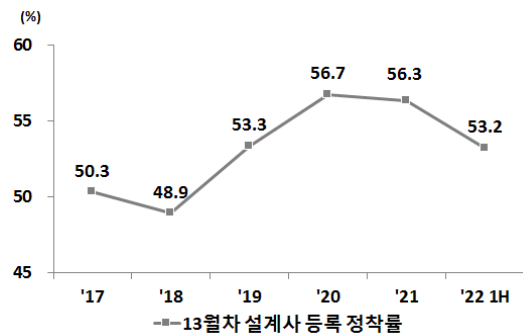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전년도에 이어 하락세를 보임

〈그림 143〉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44〉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103호 [2022년 가을호]

발 행 일 2022년 10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02-3775-9091)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